

경북도,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시군에서도 장애인 주간 맞아 걷기·체육재활증진대회 등 자체 행사 진행



경상북도는 지난 19일,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김민석 정책실장, 임종식 교육감, 도의원, 장애인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1981년 UN의 '세계 장애인의 해' 선언에 따라 각국에 기념사업 추진을 권장해 왔고, 우리나라는 1991년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법정기념일로 지정이 됐다. 이번 행사는 '함께 가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경북장애인부모회 영천시지부 소속의 별빛스타 예술단의 무용 공연과 영주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미술 공연 활동을 하는 최고덕 청년 미술사의 미술 쇼 등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기념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장애인복지를 몸소 실천한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마낙일 사회복지사, 장애인의 손발이 되어 활동 보조를 한 생활지도원 김옥주 씨를 비롯해 한국장애인 경북부회 소속 발달장애인 핸드볼팀 갓-핸드(God-Hand) 등 장애인 당사자와 후원자(개인 18명과 1개 단체)가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그 외에도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의 표창이 이어져 장애인 복지에 힘쓰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장애인과 가족, 비장애인들이 이벤트에 참여해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부대행사로 밀알공동체 등 9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애인의 날로부터 1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다채로운 행사로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이해를 돕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여나가고 있다. 경북 22개 시·군도 걷기 대회, 재활증진대회, 어울림한마당, 위문품 전달, 인식개선 캠페인 등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했다. 김민석 경상북도 정책실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가 소통해 함께 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국립의대 설립' 위해 순천대 총장 등 면담

정부 추천 대학 선정 절차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 의견 경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을 위해 이병운 순천대 총장, 노관규 순천시시장,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을 지난 18일 면담,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설명하고 지역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5일 목포대 총장, 목포시장, 목포시의회 의장 면담에 이어, 대학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확정된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을 구체화하고 완성하기 위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 순천대, 순천시, 순천시의회는 5월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 전에 전남 소재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받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정원 배정을 받기 위해, 정부가 요청한 추천 대학 선정 절차를 잘 진행하면서 그 과정을 정부에 계속 설명하고, 전남도에 의대 정원을 배정해달라고 요청하겠다"며 "순천대가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전남도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의대 정원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정부 추천 대학 선정에 대한 지역 기관 선정과 함께 추진 과정에 순천대학교가 참여하도록 시간을 갖고 설득할 계획이다.

박종배/기자



전라남도

경기도 김동연, "대한민국 경제 돌파구" 성공 경험 개기와 상생·포용, 사회적기업에 있다

18일 성남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청년 사회혁신기업가 만나 맞손 토크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경기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 탄생 행사에 이어 청년 사회혁신기업가들과 만나 '경기임팩트 맞손토크'라는 제목의 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위기 돌파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있다며 기업들의 성공을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려면 우선 과거의 성공 경험을 빨리 깨야 한다"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이 하는 걸 따라왔으나 이제는 남아 안 해본 걸 하는 선도 경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다음은 상생 또는 포용이다. 기후변화 대응, 장애인 문제 등의 가치를 경제 활동으로 옮기는 수많은 것들이 오늘 (사회적경제) 업종에 있다"며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전세계 유니콘기업과 대화를 했다. 오늘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들이 몇 년 뒤 다보스포럼에서 유니콘기업으로

나와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임팩트펀드 1호 투자기업으로 장애인 운동솔루션 업체인 '캠스터즈'를 선정했다. 임팩트 유니콘기업은 연간 매출 100억 원 이상 또는 기업가치 500억 원 이상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도는 2026년까지 '임팩트 유니콘' 100개 육성을 목표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재원으로 도는 '경기임팩트펀드'를 총 1천억 원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임팩트펀드는 올해 1기 펀드로 경기도에서 출자한 50억 원을 포함해 총 278억 4천만 원이 조성됐다. 펀드 운용사로는 가이아벤처파트너스, 엠와이소셜컴퍼니, 소풍 벤처스가 참여했다. 경기임팩트펀드 운용사 중 가이아벤처파트너스와 엠와이소셜컴퍼니가 첫 투자처로 보건복지부형 예비사회적기업이자 소셜벤처기업인 (주)캠스터즈를 결정했다. 총 투자 규모는 8억 원이다.

(주)캠스터즈는 2020년 설립됐으며 장애인의 운동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년간 연구, 휠체어 트레이드 '휠리엑스' 제품을 2022년 출시했다. '휠리엑스'는 자신의 휠체어를 트레이드밀 위에 끼워 레이싱하는 운동 기구로, 전 세계 1천600가지의 휠체어 모두 사용 가능한 무동력 트레이드밀이다. 미국 등 8개국 수출을 하고 있으며, 2023년 에디슨어워드 대상, 2024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접근성 및 노인기술 분야 혁신상을 받는 등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약해 2023년 장애인 e-스포츠 시범종목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1호 투자기업의 주인공인 (주)캠스터즈 김강 대표와 경기임팩트펀드 운용사인 가이아벤처파트너스 임정훈 부사장, 엠와이소셜컴퍼니 유자인 부대표를 비롯해 청년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기업 대표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진 맞손토크에



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해 김동연 지사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참석 기업들을 보면 (주)우후두시랩은 글로벌 지능형 탄소데이터 솔루션으로 탄소 발자국을 계산하고 관리할 수 있는 탄소중립 플랫폼 '그린플로'를 운영한다. (주)튼28은 친환경 종이팩 화장품, 고체 화장품을 생산하며 해양폐기물 플로깅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주)요크는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아동 노동문제와 교육,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슬라카우'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김범상/기자

피어나다 남원

추향, COLOR 愛 반하다!

제94회 남원 순향제

24. 05.10.(금) ~ 05.16.(목)

광한루원, 예촌, 요천둔치 및 사랑의 광장 일원

경상북도의회 박선하 도의원, 장애인인권상 수상

장애인 고용 확대와 복지정책 발전에 기여, 활발한 의정활동 결실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19일, 안동 국제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

고 유관단체 관계자 약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인권상을 수상했다. 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들의 인권을 위해 사회적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으로 헌신한 공을 인정받는 의미있는 상이다. 제12대 전반기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경상북도 장애인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누구나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 활동가"로 평소 누구보다도 열

정적으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며 장애인 고용 확대 등 장애인 자립을 위해 앞장서서 활동하며,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과정에 경상북도 내 장애인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박선하 의원은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장애인 인권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았기에 오늘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 더욱더 장애인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사회가 더욱더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청도군의의회, 제299회 임시회 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안건 23건 의결

청도군의의회는 지난 17일부터 3일간, 제299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원발의안을 포함한 조례·규칙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다가오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으로 김규봉 의원, 부위원장으로 박성곤 의원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 5,816억원, 특별회계 분야 647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399억원(6.58%)이 증액된 6,463억원을 심의하여 최종 원안 의결했다. 김효태 의장은 "올해 첫 추경예산

은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입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다. 세출구조를 조정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만큼 원안결 했으므로 신속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청송군의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청송군의의회는 지난 19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4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박신영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정하고 재정·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3명 등 총 4명을 위촉했다. 결산검사는 이달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청송군에서 작성한 2023회계연도 결산서를 검사한다. 주요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결산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 청송군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사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

성하여 청송군수에게 제출하게 된다. 권태준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지난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검사하는 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으로, 재정 운용성과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잘 살펴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표 위원을 맡은 박신영 의원은 "예산 편성 못지않게 집행 결과의 결산이 중요하다"며 "군민 열세가 올바르게 사용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사업 목적에 따라 적합하지 집행되었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시의회' 장애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 발굴, 진로 탐색 UP

장애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고, 창작활동을 통한 자존감 및 사회성 향상 기대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24일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21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연구'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들의 94.7%가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상 속 생활화된 예술 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학생 때부터 잠재 능력을 일깨워주는 교육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은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관련 시설과 예산이 미비하고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부족해 장애 학생들이 충분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 학생이 차별 없

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광역시 단위에서는 대전에 이어 두 번째 제정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장애 학생의 예술 동아리 활동이나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 관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재화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아직 장애 예술인을 길러내는 전문교육기관, 전문 공연전시 시설 등 인프라가 열악하며, 장애인 예술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확대하여 재능있는 장애 학생들이 문화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근수/기자

'대구 북구의의회 성명서 발표'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반대 성명서」 발표

차대식 북구의의회 의장과 북구의의원들, "홍준표 대구시장의 복구 주민 의사 무시한 부지 매각 강력히 반대, 이 부지가 복구 주민을 위해 활용되도록 강력히 촉구"해



대구광역시 북구의의회는 지난 19일 (금) 10시 30분, 북구의의회 본회의장에서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대구시가 달서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북구에 있는 칠곡행정타운 부지 매각을 보류해 왔으나 올해 다시 매각을 추진하면서 비롯되었다. 북구의의회는 2019년 대구시 신청사 건립지 선정 당시의 원칙인 해당지역의 공유재산이 아닌 타 구 소재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신청사 건립 재원확보를 그 당시 내세운 속의민주주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매각할

경우, 향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시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부지확보를 위한 재매입 시에는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더 큰 재정악화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차대식 북구의의회 의장을 비롯한 북구의의원들은 "복구 주민을 위해 쓰여져야 할 북구에 있는 칠곡행정타운 부지를 매각하여 달서구 지역의 대구신청사 건립비 마련에 쓰여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의 복구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소통없는 부지 매각에 강력히 반대하며, 칠곡행정타운 부지가 복구 주민을 위해 활용되도록 강력히 대구시에 촉구했다. 김동현/기자

'포항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임기3년, 9명의 자문위원 위촉

포항시의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사회의실에서 '포항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시의회는 2021년 4월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날 위촉식에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단체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5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연임되어 재위촉된 4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위촉식 후 회의를 열어 김준홍 위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들은 3년의 임기동안 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 의원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 행동강령 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적극 자문할 예정이다. 윤태용/기자

위촉장을 전달한 백인규 의장은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33명 의원 모두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포항시의의회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윤리규칙을 확립하고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포항시의의회 POHANG CITY COUNCIL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국 유일, 토론과 현장훈련을 병행한” 여주시, 경기도 합동 산사태 사전대피 훈련 실시

여주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지난 4월 18일 북내면 신남리 일원에서 산사태 사전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여주시가 산림청, 경기도로부터 산사태 예방·대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산림청과 경기도 31개 시·군 산림 관련 공무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 관련 단체 등 약 1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토론훈련 1시간, 현장훈련 1시간으로 진행됐으며, 산림청, 경기도 31개 시·군 등의 열띤 토론과 산사태 발생 전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중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전에 대피하는 모습을 참관하여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훈련에 참여한 여주시와 유관기관

(소방서, 파출소, 지역산림조합 등)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볼 수 있었다. 여주시는 앞서 읍·면·동 합동 해빙기 산사태취약지역(205개소)점검과 대피소(77개소) 표지판 부착 등을 완료하고 자체 제작한 ‘우리지역 산사태 예방대응 안내지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종합안내서’ 등을 활용하여 읍·면·동 담당자의 직무역량 강화 및 시민의 산사태 대응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훈련을 다했다. 이날 조경아 부시장은 “이번 훈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토론과 현장훈련을 병행한 처음 있는 사례로 여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성산초 학생들이 어린이 기후어사대 체험 통해 기후위기 배워

2024 기후변화주간 첫 행사...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 예정

용인특례시는 19일 용인성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제54주년 지구의 날(4월 22일)을 기념해 열리는 기후변화주간 행사에서 ‘어린이 기후어사대’를 체험하며 탄소중립을 익혔다고 밝혔다. 기후어사대는 집과 학교에서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실천 활동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잔반 남기지 않기’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성산초 6학년 학생들은 18일과 19일 각각 50명씩 용인중앙시장역에 모여 경안천길로 처인구 남동 용인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까지 약 2.5km를 걸으며 기후위기를 배우고 모의 과거시험을 보았다. 학생들은 먼저 센터 환경교육사 2명으로부터 지구온난화에 따른 폭염, 가뭄, 태풍 등 이상기후 현상과 이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위협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경안천을 걸으며 다섯 번의 시험을 치렀다. 이정숙 환경교육사는 행사를 시작하며 “지구 곳곳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형산불, 폭염, 폭우, 폭설, 태풍, 가뭄, 홍수, 한파 등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많은 생물종이 멸종위기에 처하고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현상을 맞아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환경교육사는 이후 기후어사대 과거시험을 소개하고 학생들의 선전을 당부했다. 학생들과 경안천길을 걷던 이 환경교육사는 첫 번째 과제를 출제했다. “암행어사 출두요~하면서 꼭 꺼내 보았던 물건은 무엇일까요?”라고 쓰여진 첫 문제가 공개됐다. 답은 ‘마패’다. 4개로 나눠진 팀별로 논의 끝에 한 명씩 강사에 다가가 정답을 말하고 통과되면 ‘통(通)’이라고 적힌 통과증서를 받았다. 다시 한참을 걷다가 두 번째 문제가 주어졌다. 이번 과제는 기후위기에 대해 팀별로 표현해 사진찍기다. 한 팀은 지구가 병들고 있다는 것을 아픈 표정을 하며 표현했다. 세 번째 문제는 자원순환 OX퀴즈

로 ‘무색패트는 무색패트끼리 배출한다’ 등 다섯 문제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팀별로 논의해 O와 X에 줄을 썼다. 정답은 O다. 네 번째 문제는 초성을 주고 이를 맞추는 것으로 ‘다양한 생물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을 스로크오스이라고 한다’는 예시가 주어졌다. 답은 ‘생물다양성’이었다. 센터에 도착한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한 뒤 마지막 문제를 받았다. 팀별로 센터의 체험 관련 문제를 하나씩 뽑아 답을 맞추는 방식이다. 한 팀은 센터의 ‘리보’ 로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는 질문지를 뽑았다. 답은 ‘재활용 폐기물’이었다. 다른 한 팀은 ‘온실가스 중 왜 사람들이 이산화탄소만 기억을 하고 있을까?’라는 문제를 뽑았다. 답은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90%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서다. ‘젓소의 방귀와 트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무엇인가?’라는 문제도 있었다. 답은 ‘메탄’이다. 모두 센터의 체험 관련 패널에 소개돼 있는 내용들이다. 과거시험 형식의 문답을 통과한 학생들은 기후어사대로 임명됐다. 센터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참여자 대표 4명은 조선시대 과거급제자 옷과 어사모를 착용하고 어사대 임명 교지와 마패를 받았다. 어린이 기후어사대 대원으로 임명된 서윤아 학생은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고,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경안천을 걸으며 버드나무 아래에서 관련 문제를 맞췄을 때 기뻐다”며 “기후어사대로 임명됐으니 주위에 기후위기에 대해 알리는 전도사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황준기 용인특례시 제2부시장은 “어린이 기후어사대는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지구 환경보호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한 실천 행동이다”라며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 아니라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확정 알리는 온라인 브리핑 열어... 방세환 시장, “공공체육시설 확충·기후친화적 체육대회 열 것”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 경위 발표 및 성공적인 개최 다짐



광주시는 19일, 온라인 시정 브리핑을 통해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방세환 시장은 유치가 확정되기까지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고,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했다. 시는 지난 1년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언론과 소셜미디어, 다중이용시설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왔으며, 경기도 꿈나무 축구대회 등 다양한 스포츠대회를 열어 종합체육대회 개최의 발판을 마련해왔다고 밝혔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민 7만 4천여 명의 유치 서명과 기관·사회단체 결의대회 등의 노력으로 종합체육대회 유치라는 패거리를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전까지 ▲광주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정비·확충, ▲교통·숙박·안전 등 전 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단계별 ESG 실천을 통한 기후친화적 종합체육대회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가 광주시의 체육·문화·경제·사회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향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광주시 온라인 시정 브리핑은 광주시청 공식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범상/기자

회 유지라는 패거리를 이룰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 전까지 ▲광주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정비·확충, ▲교통·숙박·안전 등 전 분야에 대한 철저한 관리 ▲단계별 ESG 실천을 통한 기후친화적 종합체육대회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가 광주시의 체육·문화·경제·사회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향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발표된 광주시 온라인 시정 브리핑은 광주시청 공식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발간

사회복지·보건 업무 지침, 서비스, 시설현황 등 수록



수원시가 수원시의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와 주요 사업을 소개하는 ‘알기 쉬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직원용 ‘알기 쉬운 2024년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시민용 ‘나에게 힘이 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안내’ 등 두 권으로 제작했다. 새빛돌봄·국민기초생활보장·여성·노인·장애인·아동·다문화 관련 사회복지서비스와 치매·모자보건·정신건강 관련 보건서비스 업무의 사업별 관련 지침(39개)을 근거로 174개 서비스, 333개 시설 현황을 수록했다. 매뉴얼은 ▲튼튼한 복지안전망 ▲취약계층 자립 기반 조성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수원새빛돌봄사업 추진 ▲어려움 극복, 위기가정 지원,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15개 장으로 구성했다. 직원용 매뉴얼은 시·구·동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등에게 배부하고, 시민용 책자는 ‘우리동네 돌봄살피미(중·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산하 단체 교육·홍보용으로 제공한다. 스마트폰으로 업무매뉴얼 홍보물에 새겨진 큐알(QR) 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이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5월까지 ‘찾아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설명회’를 열어 구·동 업무담당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원들에게 매뉴얼 활용교육을 한다. 수원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홍보 방법 등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업무 매뉴얼이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의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복지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5월까지 ‘찾아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설명회’를 열어 구·동 업무담당 직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원들에게 매뉴얼 활용교육을 한다. 수원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방안,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홍보 방법 등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청년 전월세 계약 돕는다...주거안심매니저 16명 위촉

부동산 계약 전문상담, 집보기 동행 서비스

성남시는 부동산 전월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청년들을 돕기 위해 공인중개사 16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위촉식은 이날 오전 10시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주거안심매니저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받은 평균 경력 15년의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됐다. 수정지역 4명, 중원지역 4명, 분당지역 8명이다. 이들은 사회초년생 등에게 전월세 계약과 관련한 전문 상담,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등기부등본, 근저당 금액 등 공부 검토, 주거예정지역 전월세 형성가, 주거지원 정책 안내, 집보기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은 오는 5월 2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월, 목요일 오후 2시~오후 6시에 추진에 있는 청년지원센터 세미나실과 중앙지하도상가 회의실, 정자청소수련관 2층 등 지역별 거점에서 이뤄진다. 서비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배



너청)이나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청년INFO→청년정책)를 통해서 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진행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때 뽑힌 우수 제안이다. 성남시민이 ‘청년 주거안심동행인’을 제목으로 관련 사업을 제안해 도입이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9109건)의 70%가 청년”이라며 “주거 정보에 취약한 청년층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부동산 계약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주거를 돕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블루카본 기반 그린리빙’ 조성 시범사업 추진

화성시 백미리, ‘블루카본 기반 그린리빙’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화성시가 서신면 백미리 갯벌이 서울대학교 블루카본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블루카본 기반 그린리빙’ 조성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블루카본’이란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을 통해 해양생태계가 흡수·저장하는 탄소를 말하며, 육상산림이 흡수하는 ‘그린카본’과 탄소흡수효능이 비슷하나 흡수속도는 훨씬 빠르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블루카본 기반 기후변화 적응형 해안조성 기술개발(2022-2026년)’ 중 탄소 흡수형 연안 및 기후 위기 대응 해안조성 기술개발을 위한 염생식물 식재(그린리빙) 시험시공 지역(테스트 베드)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백미리 갯벌은 지난해 12월 연구단의 후보지 탐색 및 현장 답사를 거쳐 해



양생태계의 탄소 흡수원 확대와 토양 유실방지 기능을 하는 그린리빙 해안조성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시험시공 면적은 총 1000m²으로 이중 중자 파종시험지는 300m², 종묘 이식시험지는 700m²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식재 염생식물 종으로는 갈대,

기수초, 칠면초가 선정됐다. 연구단은 지난달 말 백미리 갯벌의 해안경사 및 지형 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자생하고 있는 염생식물과 저서미세조류의 일차생산량(갯벌에 분포하는 무기물로부터 생산하는 유기물의 양)을 분석 중이다. 양시현/기자

연구단은 이달 안으로 백미리 갯벌에 그린리빙 해안조성 기술의 국내 표준화를 위한 시험 시공을 마무리하고, 오는 2026년까지 해안조성 공법의 효율화를 위해 파종 공법과 식재종묘의 크기에 따른 발아율·활착률 등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에 맞는 새로운 탄소 흡수원을 발굴하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화성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경쟁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향후 서해안 황금해안길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블루카본의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 해안조성사업을 확대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자연에서 도자기가 피어나다, “제38회 이천도자기축제”

지역과 하나되는 친환경 축제



서울 인근에서 전통 가마와 전통 요업 방식을 이용하여 원료와 맥감이 풍부한 곳이 바로 경기도 이천이었다. 기존에 터를 잡고 있던 도예가와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도예가들로 성황을 이루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지속적으로 가마가 설립되며 이천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도자기의 주요 생산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

근래에 와서도 이천 특산물로 도자기가 손꼽히고 있으며, 특히 신둔면 일대에는 삼백여개의 도자기 가마가 모여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예촌으로 알려졌었다. 현재 이천 전역에 약 사백여개의 공방에서 청자를 비롯한 백자, 분청사기, 옹기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과 작품을 만들고 있다. 도자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흙, 뿔나무를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천의 외적인 여건은 물론이거니와, 도공들의 도자기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 창작이라는 장인정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천도자기축제의 시작과 현재
1987년부터 시작된 이천도자기축제는 국내외 사람들에게 이천 도자문화의 역사와 전통미의 우수성을 알리는 연례행사로 자리잡았고, 2001년

에는 세계도자기엑스포를 개최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근래에는 단순히 도자기 판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축제가 아니라, 도자기에 문화를 입혀 콘텐츠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축제로 변화를 시도했고, 나아가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외 교류도시와 각국 대사를 초청해 국제행사로서 격을 갖추었다.

도자기를 넘어 친환경·지역상생 통합축제로
2024년, 이천시는 국내 최고의 규모와 역사를 자랑하는 도자기 축제를 다시 한번 진화시켰다. '이천도자기축제'를 넘어 여러 행사와 통합·연계하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친환경·지역상생 축제'로 변모시킨 것이다.

이천 도자예술마을 축제장에서는 도자기축제뿐만 아니라 소규모 행사를 연계하여 통합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며, 축제장 내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대체 사용하고, 가정 내 플라스틱을 가져오면 도자기 구매 쿠폰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도 진행한다.

지역특산품과 함께 이천도자기 한정판을 판매하고, 대형등을 설치하여 조용하고 독립된 전시공간을 조성했다. 대형등에서는 기획전, 명작전, 명

장 소품 판매, 현대작가공모전, 해외 교류전, 한국세라믹기술원전 등 기존에 없던 이색적인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판매 및 전시는 시뿐만 아니라 도예인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통합축제로 한발짝 나아가게 했다.

먹거리는 축제장 내 부스는 물론, 관내 식당과 연계하여 5% 할인을 제공하는 등 축제장 방문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했다. 4월 26일 개막식에는 피아니스트 문재원, 소프라노 최정원, 테너 박희림의 성대한 클래식 공연과 드론 쇼, 명장과 도예고 학생들의 물레시연, 유명 가수들의 화려한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어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한, 40여 팀의 버스킹 공연, 전통가마 소성작품 공개경매, 다례 체험, 우관스님의 사찰음식 플레이팅, 화덕살빵 나눠주기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제38회 이천도자기축제는 이천도자예술마을(에스파크)과 사기막골 도예촌에서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12일간 열린다.

김범상/기자

이현재 하남시장, 장애인의 날 기념식서 “행복한 삶 누리는 환경 조성할 것”

19일 하남시장장애인연합회 주최 제44회 장애인의 날 450여명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

이현재 하남시장이 19일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진행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하남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남시장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하남시가 지원한 이날 행사는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복지기관·단체 회원 등 약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태권도시범단, 장애인합창단 등 다양한 공연과 행운권 추첨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한 모범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 유공자 1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한동윤 하남시장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 슬로건인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 의미하듯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과 태도와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라며 "우리시



는 이 같은 시정 운영 기조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남시는 장애인의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올해 총 452억 장애인 복지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장애인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편의 증진사업인 '나눔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약 180명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활동 지원 바우처를 지급하는 '장애인 돌봄 SOS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고양특례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전시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건립 박차...개관 후 운영 방안 등 밑그림 제시

고양특례시는 지난 17일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전시·공간 기획 및 전시를 제작·설치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전시용역 수행업체인 (주)엑스오비스는 본 용역 수행 전략 및 계획을 발표했고, 고양산업진흥원은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개관 이후 운영 방안을 보고하여 본 사업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었다.

경기도, 고양특례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본 사업의 공동 시행기관인 고양산업진흥원은 향후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시설 운영과 콘텐츠 지원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보고회에는 경기콘텐츠진흥원, 고양시정연구원,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들도 다수 참석하여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활발한 토의를



진행했다.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전시·공간 기획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은 △콘텐츠IP 체험 전시실을 비롯한 건물 내부 공간 조성 및 운영시스템 구

축 △개관 전시 기획·연출 △전시물 제작·설치 등의 내용으로 2027년까지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착수 보고회 개최로 고양특례시는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으며, 건립 이전 다양한 사전 사업 추진으로 국내 콘텐츠 IP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국내 우수 콘텐츠IP를 발굴하고 이를 융복합 콘텐츠로 재창작하도록 기업 간 협업을 증대하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국책 사업에 경기도·고양특례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이후 기본계획 수립,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완료, 건축설계 공모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현재 건축설계 용역 중이며 2026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부천시, '2024년 경기도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 공모 사업 선정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 및 육성 공모' 사업에 부천국제만화마켓(BICOM)이 선정됐다.

부천시, '2024년 경기도 지역특화 컨벤션 육성' 공모 사업 선정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 및 육성 공모' 사업에 부천국제만화마켓(BICOM)이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지역의 특색있는 대규모 회의를 발굴해 경기도의 대표 국제적 행사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이스(MICE: 기업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산업 육성사업이다.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3월 25일부터 도내 31개 시·군과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연계성, 성장 가능성, 운영조직, 예산, 프로그램 내용, 미래 대응 여부, 국제회의 연계성, 관광프로그램 등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부천시 등 5개 기관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부천시 관광진흥과는 인큐베이팅 단계 지원금 5,500만 원과 마이스 전문가 단계별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부천국제만화마켓(BICOM)은 부천만화 클러스터 해외 진출 및 문화산업



회의 실질적 성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의 만화·웹툰 산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관련 컨퍼런스, 비즈니스 상담회, 작가 피칭쇼, 관광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

조용의 부천시장은 "경쟁력 있는 만화·웹툰 산업을 마이스 산업과 융복합하여 특화된 만화 도시 부천이 보유한 콘텐츠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 나아가 미래 만화·웹툰 산업을 주도적으로 견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동일/기자

자연에서 도자기가 피어나다 이천에코세라믹스

제38회 이천도자기축제 Icheon ceramic festival 2024

2024.04.25 Thu - 05.06 Mon
이천도자예술마을(에스파크), 사기막골도예촌

무료 입장 · 무료 주차
주최 이천시·이천문화재단, 주관 이천도자기축제추진위원회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진행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연구 착수, 7월 중 최종 결과보고 예정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운영정상화 TF 위원회'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위원장인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1)과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자문위원인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중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이 참석했다.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연구용역'은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 회의를 통해 제시된 과제를 바탕으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종합병원의 병원별 전략 정립, 조직 재설계 및 적정인력 도출 등의 내용을 담은 실행계획 수립을 목표로 진행된다.

연구용역사의 착수발표를 경청한 김동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TF 회의를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들과 과제들이 제시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해당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료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줄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용역사에서는 지난 TF 회의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연구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 또한 경기도의료원의 운영 정상화 방안



을 담은 실행계획 수립이 목표인 만큼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세주 의원은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 적자 문제 해결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그동안 많은 연구용역과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3개월간의 짧은 연구를 통해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 우려도 있다"라고 했으며,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연구진이 용역에 참여하는 만큼 이전보다 나은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고 경기도의료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공적영역의 개선대책에 대

한 의견제시, 중기적(최소 5~10년)으로 경기도 보건 의료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목표 제시, 필수 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 분석을 통한 역할 제시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도의료원 정상화 TF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 6개 종합병원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환자 감소 등으로 처한 심각한 재정적자 등의 위기를 해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기도의료원 병원의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지향해야 할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구성이 결의되어 활동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 학교시설 안전 대책이 담보되지 않는 교육청 관련 조례 개정의 문제점 지적

이영희 의원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 조례 개정 이전에 종합적인 학교시설 안전대책 마련을 했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4월 17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에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중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 조례 개정 이전에 종합적인 학교시설 안전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영희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에게 "교육청에서 개정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의 내용 중 학교시설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직 정원이 현행 2,079명을 1,708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학교시설안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다만, 본 조례안은 실질 정원을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째 시설관리직 미채용으로 인한 결원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지만, 정원 감축 조례 이전에 학교시설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영희 의원은 "학교시설 안전은 시설관리직 미배치 학교에 예산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특히, 경기도교육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상임위원회 도의원이 2023년 행정사무 감사 때부터 2024년 본예산 심의, 업무보고 및 집행부 면담을 통해 수 차례 본 사안에 대하여 권고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집행부로부터 개선된 대책 마련 없이, 원론적인 이야기만 들었다"라고 강하게 유감 표명을 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학교시설 안전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에게 "교육정책 사업은 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명확한 계획 수립 이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4월 의회 업무보고 시점에도 사업계획이 미수립되어 부실한 사업 운영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인재개발국, 경기도교육청울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가 자리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고양시

'화정동 도시공원 환경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9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덕양공원관리과 관계공무원과 정담회를 통해 '2024 화정동 도시공원별 추진현황 및 방안' 등을 파악하고 자문했다.

시 덕양공원관리과는 정담회 자리에서 화정1·2동에 위치한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사업지역으로 포함된 곳은 ▲하수공원 ▲은빛공원 ▲백양공원 ▲달빛공원 ▲화정중앙공원 ▲꽃우물어린이공원 ▲진달래어린이공원 등 총 7곳이다.

하수공원은 지난해 7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바닥분수 1개소 신설, 야외무대 개선, 보도블럭 등을 재정비했다. 현재 보도블럭, 농구장 등 추가 조성을 위해서도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은빛공원은 올해 3월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화장실 1개소 교체, 보도블럭·산책로 등 시설을 재보수를 진행했다. 현재는 산책로 먼지 발생으로 인해 재

정비 중이며 작업이 마무리되면 시에서도 알리겠다고 전했다.

백양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건강걷기길 조성 및 농구코트 바닥 재보수 등이 이뤄져 주민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추가 예산 확보 필요로 실시설계 발주 예정이라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달빛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황토체험장(74㎡) 조성, 산책로 및 놀이 시설 바닥 포장 재정비 등 개선이 이뤄질 계획이다. 일부 사업비가 부족해 조합놀이대 및 풋살장 구간 교체가 제외됐으나, 시 관계자는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화정중앙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산책로, 분수시설 재정비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넉넉하진 않지만 부분 공사를 진행해 시민의 휴식권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꽃우물어린이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조합놀이대 교체, 건강걷기길 조성, 다목적구장 및 노후 산책로 재포장 등이 이뤄진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진달래어린이공원은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노후 조합놀이대, 산책로 등 시설물 재정비가 이뤄진다. 또, 인라인스케

이트장 배수 불량으로 인한 물 고임을 해소하기 위해 공원 일부 구간 배수 개선공사도 함께 진행 예정이다.

정동혁 의원은 "도시공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며 "화정1·2동에서도 본 의원과 면담을 통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시청 덕양공원관리과에서도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의 절차를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 의원은 "시에서 지난 3월 도시공원·도시숲 조성을 확대해 도심 속 숲세권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우선 시 집행부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부족한 것은 적정성을 검토해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지역구 도의원에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을 위해 앞으로 도와 시, 주민 간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대내외 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제44회 양주시 장애인의 날 축하

19일, 양주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주최 '장애인의 날' 축하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9일, 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44회 양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날'은 매년 4월 20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

으로 제정된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식, 장학금(장학증서) 전달식에 이어 양주시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현대옥 회장의 인사말, 축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우리 사회에 우선 필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정한 지원은 지원이 끝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재활과 자립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최적의 기회는 물론 개개인에게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축사를 끝맺었다.

제44회 양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이란 주제로 양주시민을 비롯 강수현 양주시장,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 김민호 경기도의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김금숙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김범상/기자

'건축인 사람과 통하다, 기술과 통하다' 워크숍 개최

4.18~19일, 건축물 답사 및 우수 건축 벤치마킹 워크숍 개최 도내 건축직공무원 역량 강화 및 소통의 장 마련

경상북도는 지난 18일과 19일, 서울 일원에서 도내 22개 시군 건축직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상북도 건축인 통통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북도의 새로운 건축 정책인 '천년을 지향하는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우수 건축물을 답사하고 벤치마킹을 위해 마련됐다.

'천년을 지향하는 건축'이란 실용성과 경제성에 기준을 두고 추진하던 건축을 지역 정체성과 혼이 담긴 예술 작품을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도록 만드는 것이다.

도는 이러한 건축 추진을 위해 '어떤 사람이 살게 되더라도, 시대가 변하더라도 다시 짓게 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건축'을 목표로 건축 정책

을 추진한다.

참가자들은 첫날 우수 특화 주거단지인 서울 은평한옥마을과 우리나라 정궁이자 고건축물인 경복궁을 답사하며 건축물의 문화적 가치에 대해 논의했다.

둘째 날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용산기지 미군 장교 숙소 리모델링과 연계한 양육 친화형 용산어린이공원 시설 정비사업 현장 등을 둘러보며 도가 추진하는 초저출생 정책과의 접점에 대해 연구했다.

김태일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참가자들이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도 역점 과제인 천년 건축 실현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 공모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동부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새로운 영양소를 입히는 'NEW 동부리' 조성

영양군은 지난 18일(목), 군청 소회의실에서 오도창 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촌 공간 유해시설 정비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영양군 동부리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영양읍 동부리의 주요 현황, 사업의 타당성과 진행 절차,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보고되었으며, 농촌공간 조성의 방향과 농촌다움의 보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영양읍 동부리에는 3개의 유해시설(고추장공장, 벽돌공장, 제재소)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유해시설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영양군에서는 '26년까지'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국비 91억 등 총 181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해시설 정비와 함께 지역주민들을 위한 힐링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기본계획이 승인된 만큼 유해시설을 조속히 정비하고, 공원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구축하여 동부리 경관 개선 및 문화 복지를 향상시켜 활력 넘치는 영양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수립 승인을 완료('24.4.16.)하였으며, 향후 경북도의 시행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개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진정한 통합으로 가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해



부산시는 지난 19일, 중앙공원 4·19 민주혁명 희생자 위령탑 앞 광장에서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개최했다.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19혁명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4·19혁명 희생 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분향 ▲4·19혁명 경과보고 ▲감사패 전수 ▲박형준 시장 기념사 ▲시립무용단의 추모 공연 ▲시립합창단의 4·19 추모 합창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부산에서는 4·19혁명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진행됐다.

지난 18일에는 중앙공원 4·19혁명 희생자 유영 봉안소에서 '4·19 위령제'가 열렸고, 지난 19일에는 경남공고 강수영 열사 동상 앞에서 '강수영 열사 추모제'도 열렸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살리겠다는 저항의 횃불을 가장 높이 들었던 도시로, 부산시민의 큰 함성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다"라며,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진정한 통합으로 가는 큰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대구광역시, 'IB교육 전문가 양성 지원'업무협약 체결

홍준표 대구시장, "공교육의 혁신을 위해 'IB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의 역량을 키워 IB학교뿐 아니라 지역 학교들의 교육 수준을 높여 대구가 미래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대구광역시는 지난 19일(금), 대구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시교육청, 경북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와 'IB(국제 바칼로레아)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은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IBO(국제 바칼로레아 본부)에서 개발·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개념 이해 및 탐구학습 활동을 추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방식이다.

현재 전국 333개의 IB준비·운영학교 중 대구광역시에는 98개의 학교가 IB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 중이고, 이

중 24개 학교가 IB월드스쿨*로 인증 받았다.

* IB 본부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학교(단계 : 준비학교→관심학교→후보학교→월드스쿨)

이는 전국 최대 규모이며 IB교육을 선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최근 IB학교의 우수한 대학 입시 결과 등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대구광역시는 6대 중점 추진과제* 중 국제인증교육과정(IB)특구 운영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 공교육 혁신을 위한 과제로 IB교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4개 기관은 ▲IB

교육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 ▲IB교육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IB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와 교육청은 IB교육 기반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경북대와 대구교육대는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직접 수행하며 기관별 역량을 결합해 지역의 공교육 발전에 힘써 예정이다.

특히 경북대와 대구교육대는 IB교육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IBEC(IB Educator Certificate) 인증 기관으로,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IBEC 자격 취득 및 준전문가 과정 등 'IB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해 연간 150여 명의 IB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게

된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해 공교육의 혁신은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 'IB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의 역량을 키워 IB학교뿐 아니라 지역 학교들의 교육 수준을 높여 대구가 미래세대들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에 다시 찾아온 캄보디아 근로자'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26명 입국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큰 도움돼

봉화군은 지난 18일,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26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국하는 계절근로자 대부분은 전년도에 농가에서 재입국 추천을 받은 성실 근로자이며 다음 달까지 55명이 입국하게 된다.

이날 입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조건, 인권보호, 통역지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봉화군은 지역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공급 안정화 계획에 따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과 MOU 체결을 추진했다.

이는 해당국가의 국내의 문제로 인한 인력공급 중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각 국가의 근로자 간 경쟁을 유도하고, 고용농가에 우수한 근로자 선택권을 줄 수 있게 된다.

신종길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상반기 550여명의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게 되면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앞으로는

농년농사가 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 지도에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하여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체류기간은 농가에서 요구에 따라 90일 또는 5개월이 되고 5개월(E-8) 근로자는 농가와 합의하여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봉화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필리핀과 MOU를 체결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필리핀 계절근로자도 시범적으로 농가에 배정할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2024년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 개강!

윤경희 청송군수, "이번 교육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군에 활력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혀

청송군은 지난 6일(화),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4년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을 개강했다.

이날 수강생 등 30여명이 참석한 마을활동가 양성교육은 청송군민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학습 문화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16일 개강을 시작으로 매주 화,목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12회차로 진행된다.

해당 강좌를 수료한 주민들에게

는 건강체조 지도사 자격증이 주어지며, 청송군에서 추진하는 시군역량사업 등에 강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교육이 통해 가속화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우리 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몽골, K-전통의학 실크로드 국제협력 MOU 체결

경상북도·영덕군·대구한의대·몽골 교육과학부·몽골모노스그룹·몽골약학대 간 협력 전통의학 소재 국제공동연구 및 K-한방 에듀팜 설립 등 논의



경상북도는 지난 18일, 몽골 교육과학부 청사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영호암갈랑 룡상체행 몽골 교육과학부장관, 김광열 영덕군수, 변창훈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후렐바타르 룡상 모노스그룹 회장, 올람바야라 람수렐 몽골약학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영덕군·대구한의대학교·몽골 교육과학부·모노스그룹·몽골약학대학교' 6자간 'K-전통의학 실크로드 국제협력' MOU를 체결했다.

경상북도와 몽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통 의학 국제공동연구 및 교

육과정 공동 개발 ▲K-한방 에듀팜 설립 ▲국가 간 협업체 구성에 협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국제협력은 경상북도가 지방소멸 극복 시범 마을 조성을 위해 의성군 이웃사촌 시범 마을을 토대로 2022년부터 2026까지 4년 동안 영덕군 영해면 일원에 추진 중인 이웃사촌마을 확산 사업에서 시작했다.

경북도, 영덕군, 대구한의대학이 새로운 청년 일자리와 국내·외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힘을 모아 지난해 5월, 대구한의대학교 세대통합지원센터를 개

소하고 한의대와 한의대 졸업 청년이 영덕에서 상주하며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새로운 상상 모델을 발굴했다.

지역과 행정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학교는 청년의 열정, 기술, 아이디어를 융합해 첨단 스마트 농업기술, 한약재 생산기술, 한약재 국제화 표준화, 스마트농업 기술 수출, 전통 의학 교육 등을 추진하는 기반을 만든다.

이번 국제협력 또한 이웃사촌 마을 확산사업의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올해 2월 후렐바타르 룡상 회장의 경상북도 방문 후 경상북도와 영덕군, 대구한의대학교의 신속한 업무 조율로 협약의 급물살을 탔다.

몽골 모노스그룹은 몽골 최초의 10개 비상장 기업으로 설립하였으며 제약, 유통, 코스메틱, 건설 등 36개 계열사와 2,500명 이상의 직원이 일하는 몽골의 10대 그룹 중 하나이다.

몽골 약학대학교는 2000년 모노스대학으로 설립되어 2015년 몽골약학대학교로 발전했다.

의약품 분야의 연구, 훈련, 제조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몽골 전통 처방, 성분, 약용 식물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춰 약용 제품과 보조제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영호암갈랑 룡상체행 교육과학부 장관은 "전통 의학 분야 우수한 기술·인

력을 가진 경상북도와 협약을 맺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며 "몽골의 의학과 약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경상북도와 대구 한의대를 만난 것이 큰 영광과 기회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긴밀한 관계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와 몽골은 과거 5~6세기에 실크로드를 통해 많은 교류가 있었고, 오늘 협약을 계기로 몽골 정부, 대구한의대학교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났다"고 강조하며 "K-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중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갈 길 기대하며 더욱 힘 모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전통 의학의 최고의 기술과 자원을 가진 경상북도에 대구한의대학교와 협업해 전통 의학을 글로벌화해서, 관련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몽골, 우즈베크, 중앙아시아권의 정부와 대학들과도 협력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며 "이러한 기획과 추진 성과가 지난 4월 16일 교육과학부 글로벌대학 예비지정에도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윤근수/기자

올해 벚꽃 농쳤다면... "네비에 '경주불국공원'을 치세요"

"벚꽃빛 보러 왔어요"...경주 불국사는 상춘객들로 '복직' 벚꽃 농친 아쉬움 달래는 벚꽃 성지 '경주 불국공원'

완연한 봄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겹벚꽃 명소로 알려진 경주 불국공원에 도 가족과 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불국사 일원은 겹벚꽃 300여 그루가 밀집되어 있어 개화시기인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이곳은 '인생샷' 성지다.

특히 경주시는 그간 겹벚꽃 개화기에는 경관 조영으로 이곳을 화려하게 꾸며 온 것도 이곳이 겹벚꽃 성지가 되는 데 한몫했다.

이곳을 방문하려면 네비게이션에 불국사공영주차장 또는 경주시 진현동 85-9를 검색하면 된다. 불국공원은 불국사 입구에 위치해 있어 별도 입장료는 없지만 주차요금은 내야 한다.

주차요금은 시간 구분 없이 1회당 소형차량은 단 돈 1000원이다. "이렇게 받아서 남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만큼 정말 싸다. 이것마저 내기 싫은 분들은 그냥 집에 계셔라.

간간한 분들을 위해 좀 더 설명 드리자면 소형차량은 1위인승 이하, 2.5톤 미만 화물차를 의미한다. 이것보다 더 큰 차 끌고 오실 분들은 2000원을 내면 된다. 매우 합리적인 요금 책정 방식이다. 단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평일에 오길 당부한다.

정 그래도 주말에 이곳을 찾았다면

불국사 상가 공터나 가게 앞을 한두 번 훑으면 주차 공간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니, 주차 공간을 선뜻 내 준 가게 앞에 들러 커피가 됐건, 식사가 됐건, 기념품이 됐건, 지갑을 여는 여유도 보여주시길.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경주시가 인력 30여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교통지도에 나선다고 하니, 공무원들의 지시에 토 달지 마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도 간곡히 당부한다.

윤태용/기자



영덕군, 자원봉사 행복마을 18호 사업 금호2리에서 개최

자원봉사자와 주민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 잔치 한마당 펼쳐져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강구면 금호2리 일대에서 자원봉사단과 마을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자원봉사행복마을 액션데이를 개최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와 마을주민들의 참여로 마을의 여러 문제를 개선하고 함께 마을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유대감 증진하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마을 재생 사업으로,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금까지 관내에 18호 행복마을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날 행복마을 현판 제막식엔 참여단체와 기관을 위한 환영 행사와 함께 봉사자들의 재능기부로 벽화작업 라운드,

문패 교체와 같은 여러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졌다.

특히, 봉사자들은 타로카드와 식음료 부스 등을 운영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부대행사를 곁들여 마을 사람들이 흥겹게 어울릴 수 있는 잔치 분위기로 물들였다.

권용걸 자원봉사센터장은 "자신의 재능을 공익에 아낌없이 나누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자원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지역에 흩어진 수많은 마을 중에서도 손길 ভাল 잘 단지 않은 지역을 찾아 생활의 여건을 개선하고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봉사자들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금정구, 패션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예비 창업자 모집

패션, 창업 교육 등을 지원 예정이다.

또한, 창업 지원사업과 더불어 금정구 소재 성장 유망한 섬유 패션 및 봉제 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비즈니스기획단 연계를 통해 상품개발에서부터 마케팅 지원까지 단계별 컨설팅과 사업 지원을 통해 금정구 섬유 패션 및 봉제산업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패션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시작의 밑거름을 다져주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추진의 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패션창업을 꿈꾸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태/기자

부산지 금정구는 섬유 패션 및 봉제 산업 육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의류제조 1인기업 창업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자(사업자등록 5년 미만)를 모집한다.

금정구는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최종 선정된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 공간, 창업 컨설

김희태/기자

'함께하는 행복축제' 울진군, 2024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

손병복 울진군수, "오늘 '장애인의 날'이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문턱을 넘어서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울진군 지난 17일, '2024년 장애인의 날 기념식'함께하는 행복축제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울진군, (주)한울원자력 본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었으며 손병복 울진군수, 박형수 국회의원의 축사, 어울마당 등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축사를 통해 "울진군은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장애인들이 불편함 없이 더욱더 건강한 삶

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동목욕 및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오늘 '장애인의 날'이 우리 사회의 차별과 편견의 문턱을 넘어서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예천군, "2024 Y-FARM Expo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및 귀농 귀촌 정보 제공



예천군은 지난 19일부터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24년 Y-Farm Expo 귀농귀촌 청년창업 고

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농업 관련 기관, 농업인 단

체, 기업 등이 함께하며, 예천군은 홍보 부스를 통해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도시민과 청년들에게 정책상담을 제공하고 예천군 농·특산물을 홍보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 설명과 다가오는 예천군 활축제(5.3~5.6)와 현대양궁월드컵(5.21~5.26)을 홍보해 도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권용준 농정과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도시민들에게 예천군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여러 행사들을 알려 도시민들

이 예천에 귀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귀농·귀촌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책을 마련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천군은 ▲농업창업자금 융자 지원 ▲영농 정착지원,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농촌에서 살아가기 프로그램 운영, ▲귀농인의 집 운영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선일/기자



윤근수/기자

영천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템e' 교육 실시

투명한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현장 교육 진행

영천시는 지난 18일, 영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지방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보조사업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원활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템e'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교육을 진행했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템e'는 지방보조사업의 계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업무처리 전 과정을 정보화하고 온라인으로 모아 한 곳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해 올해 전면 개통됐다.

이날 교육은 1차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과정, 2차 민간보조사업자 과정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기초교부·보조사업자 선정 및 단체관리·교부신청·집행 등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실무교육 중심으로 이뤄졌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스템 사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발효식품 장류의 핵심 '경북 콩', 세계인의 먹거리로!

경북농업기술원, 경북 장류 세계화 방안 심포지엄 개최 발효식품(장)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수출증대 방안 마련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지난 19일, 농업인회관에서 농식품 경영체, 관련 학계 및 시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장류 세계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경북 발효식품 장류, 세계인의 먹거리로'라는 주제로 장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증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이계호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장류의 기능성 및 세계화 발전방향', 류정아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업연구관의 '경북 장류 실태 및 개선방향', 김수희 경민대학교 교수의 '국내외 식품트렌드에 따른 장류 상품화', 윤지영 경북 성주 알알이푸드 대표가 '장류 수출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주제발표 연



사 외에 김명희 영남대학교 교수, 김취영 특배기식품 상무이사, 원민정 농촌지원국장이 패널로 참석해 발효식품 활용의 장단점, 장류 안전성 확보방법, 안정적 원료수급대책 등 경북 장류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참석자와 열띤 현

장 토론이 진행됐다. 경북농업기술원은 '글로벌 헬스 K-푸드 도시' 도약을 목표로 발효과학 인프라 구축, 지역 원료 계약재배, 대량생산 시스템을 위한 생산기공 시설개선, 장류 발효 체험관광 사업 추진을 계획

하고 있다. 콩의 원산지는 우리나라이고, 음식의 대표적인 조미료로 발효식품인 장(醬) 맛을 결정짓는 콩의 주요 산지는 경북이다.

이에 경북은 콩 발효 산업 중심축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콩 소비 촉진을 위해 5월 30일을 콩 발효식품 먹는 날로 하기 위해 '한국장 데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콩 발효식품은 지역의 향토음식과 연계해 발전해 왔고, 장류를 세계인의 먹거리로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와 콩을 함께 수출하는 것이라며, 경북 장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K-푸드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봄꽃 명소 '찾아가는 숨 서비스' 제공

대구 내 공원 일대 도로 위 재비산먼지 제거작업 실시 4월8일(월)~19일(금) 2주간, 공원 11개소에 분진흡입차 투입 봄나들이 기간 깨끗하고 건강한 숨 환경 조성에 기여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2주간, 대구 내 공원 일대에 분진흡입차 8대를 지원해 '찾아가는 숨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찾아가는 숨 서비스'는 봄꽃 명소로 시민들이 많이 찾는 수성못, 두류공원, 꽃보라동산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찾아가는 숨 서비스'는 대구시민의 삶터, 일터, 쉼터, 배움터 인근의 대기질 개선과 보다 건강한 숨을 제공하기 위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이다.

고 밝혔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는 "봄나들이 기간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 만큼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구 시민들이 맑은 숨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제4대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차재근 前 지역문화진흥원장 임용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문화회관이 높아진 시민들 문화적 갈증 충족/지역 창작 예술인에게 많은 기회 제공해 부산 대표 문화예술 중심(앵커) 시설로 거듭날 것" 당부

부산시는 제4대 신임 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에 차재근 前 지역문화진흥원장을 임용했다.

임용장 수여식은 지난 18일, 시청의 전실에서 있었으며, 신임 대표이사의 임기는 임용일인 지난 18일부터 2년이다.

차 신임 대표이사는 지역문화진흥원장,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부산문화재단 문예진흥실장 등을 역임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문화정책 수립 및 실행에도 참여한 중앙과 지방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가다.

특히,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재직 시, 철강도시 이미지인 포항을 문체부 지정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끌어냈으며, 지역 예술인들과 시민 중심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 지역 문화예술의 질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차 대표이사는 "부산은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등 대규모 공연장 개관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어, 부산문화회관이 이러한 대규모 공연장과 차별화되는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높은 문화 향유 갈증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책임이 막중하지만,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도시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찾게 된다"며, "높아진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유지하고 지역 창작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부산문화회관이 더 많은 시민이 즐겨 찾고 사람들로 북적이는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중심(앵커)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희태/기자



영양군,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대응 자체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

영양군농업기술센터는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관내 과수 농가 개화기 저온 피해 선제적 대응·예방 및 현장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자체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

과수 농가에서 개화기 전후로 저온 피해를 입으면 심한 경우 개화하지 못하고 고사하거나, 개화하더라도 결실되지 않고 수량이 적어 기형과가 되어 조기 낙과하는 등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농가에서 저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저온 예상 1~2일 전 적절한 관수를 하거나 아미노산류 영양제를 살포하는 방법이 있다.

현장 기술지원단은 농가의 과수별 생육 상황을 분석하여 저온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요령 및 개화기 과원 관리법 등을 현장 지도함으로써 관내 과수 농가의 저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그뿐 아니라 살수 시스템이나 방상팬을 사용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더불어 해당 시설들의 점검을 실시하여 저온 대응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매년 이상기상으로 인한 저온피해로 과수농가의 피해가 심해지고 있으니 현장 기술지원단, 과수농가 모두 저온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상주시, 숙원 사업 해결 한발 앞으로 다가와

'상주 무양·낙양지구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마무리 다가와 강영석 상주시장, "이번 도심 내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미관/통행 여건이 개선돼,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

상주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무양·낙양지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상주시는 무양동과 낙양지구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무양동 상주변전소부터 남산근린공원을 거쳐 신봉동 병성천 구간까지 총 3.9km 구간에 세워져 있던 15만 4천 볼트 철탑 20기를 24년 내 모두 철거해 12월까지 지중화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 구간은 시내 지역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송전탑으로 그동안 아파트와 주거밀집지역 인근을 통과해 주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민원은 물론 오랫동안 도시미관과 도시개발 저해 요인이 되었다.

이에 그동안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지중화 사업의 막대한 공사비로 인해 미루어오다가 2017년 5월 상주시와 한전 경북본부가 지중화 사업을 위해 사업비 50%씩 공동부담하고 상호협조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미관 정비뿐 아니라 상주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남산근린공원 내 철탑 철거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철탑 인근에 위치한 상주고등학교 학생들의 면학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7년도 선정된 남원·동성동 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의 중심상가 거리환경 개

선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던 서문사거리↔SC제일은행 구역의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완료 이후에는 보행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도심 내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미관 및 통행 여건이 개선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중화 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시민들에게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임을 고려해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 '202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윤경희 청송군수, "청송의 꿈이자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데 장학금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고, 각자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고 밝히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16일(화),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238명의 장학생에게 4억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하여 윤경희 군수, 신덕섭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신효광 경상북도의

원, 군의원, 관내 중·고등학교장, 장학회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재)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는 2005년 설립한 이래 장학금 지급 뿐만 아니라 청송인재양성원과 재경청송학사 운영, 관내 학교와 교육지원청 교육여건개선사업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장학회 이사장인 윤경희 청송군수는 참석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기탁자들의 따뜻한 소중함을 전달하는 한편 "청송의 꿈이자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꿈을 키우는데 장학금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고, 각자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 산사태 재난대비 훈련주간 운영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과 예방교육으로 너도나도 산사태 조심!



경상북도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 주간으로 정하고 시·군별로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이에 경상북도와 봉화군이 주관해 18일 봉화군 물야면 개단2리 마을회

관에서 관할 경찰서, 소방서와 개단2리 마을주민, 관계 공무원, 산사태 현장 예방단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 훈련'과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을 함께했다.

이번 훈련은 산사태 취약지역 거주 세대를 대상으로 극한 강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상황을 가정한 뒤 실제 주민 대피와 핵심 행동요령을 익히고 산사태 대비 실제 대처 행동을 모의 훈련했다.

실제 대피경로와 대피소 확인, 주민 비상 연락망 및 주민 대피 담당자의 임무 역할 확인 등을 점검하고, 안전 취약계층 어르신, 민간 조력자에 의한 대피자, 대피거부자의 강제 대피 등 대피자들의 경우를 가정해 경찰서와 소방서의 협력으로 대피체계를 강화했다.

대피 훈련 후에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으로 산사태에 대한 위험인지 및 상황 발생 시 대처 행동, 산사태에 대한 인식개선 등 경상북도사방기술교육센터에서 예방교육을 병행 시행했다.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은 희망 시·군에 신청받아 금년도 찾아가는 교육 25회, 찾아오는 교육 5회를 실시 예정으로 산사태로부터 도민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현애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산사태 재난 대비 대피훈련과 예방 교육이 도민의 안전한 삶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해서 산사태 예방 교육을 하고, 산사태 대피에 대한 인식개선과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산시, 해외 유입 홍역 환자 발생에 따른 확산 방지 총력

방역대책반,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홍역 감시·예방 강화

경산시는 지역 대학교 기숙사에서 해외 유입 홍역이 발생함에 따라 방역 상황실과 선별진료소(2개소)를 운영하고 홍역 발생 감시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지난 6일 첫 확진 받은 후 현재 11명의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즉시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해당 대학의 기숙사 층별 코호트 격리(이동 금지)를 시행했다.

홍역 확진자는 증상이 경미해 대중치료와 개별 격리를 진행하고 있다.

경산시는 홍역 집단 발생에 따른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4월 18일부터 유행 종료 시까지)하고 있으며, 홍역 상황실(경산시보건소·경북권질병대응센터·경북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해당 대학교 내 설치해 홍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해당 대학의 외국인 기숙사생 1,200여 명 전원에게 MMR 백신을 접종



중하고 이후 이상 반응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홍역은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발열, 기침, 콧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발진이 생긴 후 증상 발현 1일부터 2일 전부터 증상 후 4일까지 감염이 전파되며 치사율은 낮으나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

주요 호흡기 비밀을 통해 전파되므로 감염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즉시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 예절(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지켜 감염병을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광삼/기자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주민설명회 개최

'밤이 아름다운, 안전한 영주' 조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경북 영주시는 지난 19일, 영주상공회의소에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영주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은 구도심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어두운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야경 명소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야간경관계획은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광도시로서의 매력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날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는 송호준 영주부시장, 영주시의회 의원, 관련 부서장과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사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시 전체의 야간경관 가이드라인과 권역별 경관 특성에 따라 선정된 7개의 야경 명소에 대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시는 서천 야간경관 조성의 시범사업



구간으로 서천교~한정교까지 야간경관 조명 설치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색있는 경관 조명 연출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원당천 산책로는 야간에 어두워 시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소수서원은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특색 있는 관광형 야경 명소로 조성할 계획임을 전했다.

정금자/기자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야간경관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야간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특색있는 야간 명소를 발굴하고자 한다"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 문경오미자재배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 개최

민관연 합동 운영으로, 다각적인 현장기술지원 모색 오미자재배 농가의 재배 기술 수준 향상은 물론, 문경오미자의 안정적인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문경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8일, 농업기술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특화작목인 문경오미자의 안정적인 생산량 증대를 위해 2024년 문경오미자재배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문경오미자재배 선도 농가, 농업기술센터 지도 및 연구사,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봉화약용작물연구소 연구사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 및 관계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훈 전략작목연구소장의 개회사, 현장기술지원단 활동 취지 및 운영계획 설명, 현장기술지원단으로 선정된 선도

농가 7명에 대한 명예현장지도관 위촉장 수여, 기념 촬영 순서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현장기술지원단은 오는 12월까지 월 1회 정기 및 수시 회의를 개최하며, 오미자재배 농가 및 지원단 간 정기적 교류 활동으로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기술적 대책 마련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 및 종합기술매뉴얼 작성 등의 임무를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문경시농업기술센터 김미자 소장은 "현장기술지원단의 운영을 통한 다각적인 기술 협의를 통해 오미자재배 농가의 재배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물

론, 문경오미자의 안정적인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울릉군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및 발대식 실시

남한권 울릉군수, "군에는 1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다. 게이트키퍼 여러분이 중심이 돼,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주변에 자살이나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신속한 제보를 당부"해

울릉군은 지난 19일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게이트키퍼 양성교육 및 발대식을 실시했다.

양성교육의 주요내용은 자살 및 고독사 예방과 복지서비스 연계 방법, 인적안전망 구축, 주민 간 소통 및 교류 강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의식 회복,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이며, 강의는 울릉군 보건의료원 박현수 주무관이 진행했다.

발대식을 통해 게이트키퍼 활동 인력은 신속한 위기구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군에서는 게이트키퍼가 위기구발굴 시 즉시 읍·면 사무소 및 군 복지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록 제보·신고하는 역할을 부여해 더욱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발대식에서 참석자를 격려하고 "우리 군에는 1인가구와 노인가구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게이

트키퍼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 우리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주변에 자살이나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과 신속한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강제/기자

군위군, 로컬푸드 생산농가 선진지 견학 실시

로컬푸드의 나아갈 방향과 소통의 계기로 삼아

군위군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군위군 로컬푸드 출하예정 농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로컬푸드 생산농가 역량강화를 위해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로컬푸드직매장 모악산점 및 완주군로컬푸드 가공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매장 현황 청취와 직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직접 둘러보며 군위형 로컬푸드 성공을 위하여 참여농가 스스로가 준비해야 할 점들을 몸소 느끼고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 직매장 운영 시스템에 대한 벤치마킹과 출하농가간 유대강화 등 완주 로컬푸드 운영 사례 강의를 들으며 군위군 로컬푸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됐다.

군위를 생산 농가 김모(남, 66)씨는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군위 로컬푸드 맞춤형 생산을 위한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이 됐고 추진 의지를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농산물 유통과 지역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기여하는 로컬푸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회용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돈이 되는 농업 농촌 만들기의 일환인 군위형 로컬푸드의 첫 단추인 선진지 견학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

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완주군 성공사례를 뛰어넘는 군위형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에 박차를 가할것"이라며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동현/기자

청도군, 임산부, 영유아대상 5년 만에 영양플러스 대면교육 재개

김하수 청도군수, "임산부·영유아 미래 건강 위해 관내 영양플러스 대상자에게 다양한 영양 관리 서비스 제공, 영양 문제 해소와 균형잡힌 식생활 영위 노력"

청도군은 코로나19 이후 '영양플러스사업' 첫 대면 교육을 지난 4.19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교육은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를 주제로 영양플러스 대상자 21가구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앞으로도 매월 다양한 주제로 연말까지 대면 영양교육을 실시해나갈 예정이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

를 대상으로 월 2회 개인별 맞춤 보충식품을 가정에 직접 방문 전달하고, 다양한 영양관리 방법을 주제로 월 1회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한편 청도군은 영양플러스 대상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및 교육을 위하여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여 영양상담, 새로운 영양소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해 나갈 계획이다.

청도군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하여 청도군 관내 영양플러스 대상자에게 다양한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양 문제를 해소하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전남도, 생생한 현장 목소리 전하는 '민원메신저' 역량 강화

지난해 도민 불편사항 2천425건 제보 등 역대 최대 성과



전남도는 19일까지 이틀간 여수 디오센터에서 민원메신저 연찬회를 개최,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활동

연찬회에선 미 활동자 해촉으로 대체 선발된 신규 메신저 2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구성원 결속과 화합을 다졌다.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과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순천 선운사와 여수 장도 등 주요 관광지를 돌며 홍보 활동도 펼쳤다.

전남도 민원메신저는 현재 293명이 제12기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2천425건의 도민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등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3천 건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963건의 실적을 올렸다.

이소현 민원메신저 대표는 "민원메신저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뜻이 모여 이뤄진 작은 변화들을 볼 때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도정을 대표하는 소통 채널로서 민원메신저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김명로 전남도 도민행복소통실장은 "도민 삶의 현장 곳곳을 발로 뛰며 불편 사항을 두루 살펴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해 생활 현장과 행정의 거리를 줄여주는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더욱 활발히 활동을 이어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민원메신저는 2003년 43명의 민원모니터 요원으로 시작해 도민과 가장 가까이에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제12기 민원메신저 활동은 임기가 만료되는 2025년 1월까지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종배/기자

순천만국가정원 그린루트를 주제로 연중 문화행사 시작

캐릭터 카퍼레이드, 기획공연, 버스킹 등 다채로운 행사 개최

순천시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정원 문화(감성) 그린루트'를 주제로 올해 12월까지 매주 주말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정원문화(감성) 그린루트'는 AI와 문화콘텐츠를 덧입혀 우주인도 놀러오는 정원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개장한 국가정원에 아날로그 감성의 빛을 더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국가정원만의 차별화된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위해 ▲콘텐츠 강화 ▲콘텐츠 개선 ▲콘텐츠 창출 등 크게 3개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문화콘텐츠 강화를 위해 매주 토요일 17시 스페이스 허브에서 정원 감성을 살린 수준 높은 기획브랜드 공연을 개최한다.

지난 4월 13일에 첫 번째로 시작한 플루티스트와 남성 6인조 관악기 밴드가 잔디와 호수를 배경으로 퍼포먼스를 실시하여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오는 5월부터는 콘텐츠 개선을 통한 자체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순천의 스토리를 담은 캐릭터 카퍼레이드를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여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또, 정원의 새로운 문화콘텐츠 창출을 위해 지역 청년들의 버스킹 공연 등도 다채롭게 편성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문화행사에 주목할만한 점은 정원과 조화로운 공연을 위해 대규모 음향과 무대, 그리고 대규모 출연진을 얹는 3無전략이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반복 진행하는 행사보다는 꿈과 감성을 섬세하게 자극해 깊은 여운을 남기는 정원문화 3無 전략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국가정원이라는 순천만의 특별한 지역자원을 정원 문화 전달 플랫폼으로 조성하여 문화자원 가치의 극대화를 꾀하겠다"며, "새롭게 시도하는 '정원문화(감성) 그린루트'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원운영과에서는 국가정원을 직접 방문하지 못한 시민이 일상에서도 정원문화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행사 사진과 공연 영상을 국가정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승준/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영산강 국가정원 청사진 밝힌다... 22일 현장 브리핑

22일 영산강 정원 조성 현장서 언론인 초청, 주요 현안 설명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이 민선 8기 지역 발전 핵심 동력으로 강조해온 새로운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 비전과 시정 주요 현안을 언론에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나주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영산강 정원 조성 현장에서 윤병태 시

장이 2024년 시정 현안 브리핑을 열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윤 시장은 '영산강 정원 조성사업 경과 및 비전', '2024 나주영산강축제 기본방향',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을 참석 언론인들에게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민선 8기 출범 후 환경부에서 공모한 통합하천사업에 선정되면서 항구적인 재해 예방에 초점을 둔 차이수 사업과 더불어 저류지 공간을 활용한 친수사업으로 영산강 정원 조성을 자체 추진 중이다.

영산강 정원은 최종 목표인 국가정원 지정의 1단계 사업이다.

올해 통합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영산강 저류지 약 17만평에 축제 광장, 테마정원, 주차장, 피크닉장, 진입교량 및 제방도로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 시장은 2천년 영산강 유역 고대 문화권의 중심이었던 나주 영산강의 과거와 현재, 한계와 개선 방향 등을 토대로 영산강 지방정원 조성 계획과 국가정원 지정 방향을 설명했다.

올해 대표축제 행사인 '2024 나주영산강축제'는 영산강 정원 일원에서 10월 8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개최된다.

윤 시장은 영산강 정원을 상설 축제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 상황과 축제 일정, 주요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고 지난 4월 8일 위촉한 박명성 총감독을 소개한다.

축제는 작년에 이어 농업페스타, 반려동물페스타, 마라톤대회와 읍면동 노래자랑 등 주민참여프로그램이 더해진 통합축제로 기획했다.

윤 시장은 이어 남도의병역의 구국충혼

을 기리기 위한 전라남도 공역사업인 남도의병역사공원 조성사업 배경과 사업 대상지 선정 등 그간 추진 경과 및 상황에 대해 밝힌다.

특히 지난 4월 16일 나주시 시민권 위원회에서 제출한 '고구려궁 드라마 세트장 철거' 권고안을 토대로 한 2단계 사업부지 활용 방안 등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을 포함한 남도의병역사공원 추진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영산강 국가정원, 2024 나주영산강축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등은 "500만 관광객이 나주 실현을 위한 발판이자 마중물이다"며 "현장 중심의 설명을 통해 언론의 공감대를 얻고 지역사회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안/기자



강진군,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 첫 시행

강진원군수, 근로자 숙소 준비상황 사전 점검

강진군이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해 농번기 농작업을 수행, 농촌일손 돕기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강진군이 국제우호교류 도시인 베트남 하우장성-풍합현과 농업인력 파견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결과 선발된 근로자 20명이 오는 22일 입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강진군은 하우장성-풍합현과의 협약을 현실화 하기 위해 공문과 이메일, 메신저 등을 통한 수차례 실무협의와 거처 양국간 의견차이를 극복하고, 지난 2월 인력 선정기준과 이탈 방지 대책 등이 포함된 '실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근로자들이 거주할 숙소를 마련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외국인 계절근로제는 중간에 개입된 브로커와 일부 사용자 등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 등이 지난해 말부터 언론에 보도되는 등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의 목소리가 부각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강진군의 경우 이러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강진군은 부정적인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 국제우호교류를 추진중인 베트남 하우장성, 풍합현 등 지방정부와 직접 협의를 진행해 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애초부터 없앴고, 공공기관이라

할 수 있는 도안농협에서 계절근로제를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을 채택했다. 근로자의 숙소도 강진군에서 사유시설을 임대해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숙박비도 법무부 지침에서는 1인당 월 3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강진군에서는 1인당 월 12만원만 공제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 보장과 이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17일 강진군 도암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를 사전 점검하면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한 농촌 지역의 인력 수급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정착시켜 농번기철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등 농업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2일 입국하는 베트남 풍합현 계절근로자는 모두 20명으로 입국 후 마약 검사와 한국문화 및 농작업 안전에 대한 교육, 간단한 한국어 교육 등을 마친 후 같은 달 25일부터 농업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추윤호/기자

남원시 '전통문화와 나무향기로 거듭나는 춘향골 새넉마을' 우리마을 이렇게 바뀌어요

목공예 특화도시재생사업으로 거듭나는 동문밖마을

남원시가 전통문화와 나무향기로 거듭나는 춘향골 새넉마을'을 만들기 위해 동충 1통, 8통, 향교동 1통, 8통, 16통 주민을 대상으로 동문밖 마을 도시재생활성화 추진방안 설명 및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지난 12일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15일 동충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대화에는 각 40여명의 마을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개요 및 예산, 집수리 및 골목길 환경정비 등 세부사업 등이 소개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업에 대한 다양한 안내는 물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은 예로부터 목공예의 중심지였다. 2026년 울림 목공예 전시관까지 준공되면 남원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목공예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만큼 이번 도시재생 특화사업을 통해 여러 제재소가 있었던 목공예의 중심인 동문밖 마을이 다시 한 번 목공예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시장은 "구도심 쇠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한편 2023년 12월 국토부 도시재생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문밖 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목공예 특화창업 지원을 위해 목공예창업지원센터, 목재문화 체험카페, 전시·판매실, 목공예 창업지원스튜디오 등을 조성하여 일 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상권을 되살려 나가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전통문화와 나무향기로 거듭나는 춘향골 새넉마을'이라는 주제로 선정, 목재를 테마로 한 집수리 지원, 안심 골목길, 생활가로정비, 근린상가 정비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2024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성료

전남 함평군이 17일 치매 예방 걷기 실천 및 치매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4년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걷기 행사는 보건소 치매 프로그램 참여 어르신, 치매 유관기관 종사자, 학생 등 지역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수상봉에 새롭게 조성한 '함평천치 맨발길'을 걷는 코스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함평천지길 숲길 2.5km 중 황토길 0.6km를 맨발로 걸으며 심신에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동시에 치매에 대한 편견을拂拭시키고 치매극복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군은 워크온(걷기열)을 이용한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4월 19일부터 5월 3일 기간 함께 운영해 많은 주민이 치매 극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100세 시대에 치매는 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사회공통의 문제"라며 "이번 행사가 치매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건강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PR전문가들의 제언을 듣다, 전북도 2024년 한국PR학회 정기학술대회 전북에서 개최

PR 전문가들 다양한 사회현상 문제 및 해결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4월 19일 금요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4년 한국PR학회 봄철 정기 학술대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한국PR학회는 1997년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PR 커뮤니케이션 관련 학술 및 교육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1,000여명의 전국 단위 학술 단체다.

이번 학술대회는 PR분야 전문가들이 AI, 한류 등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한 특별기획 논문과 학술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15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이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성공적 PR 전략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세션이 마련됐다.

이 특별세션은 4개 주제로 나누어 한국대 전종우 교수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브랜드와 시각적 아이덴티티 분



석, 김활빈 강원대 교수의 '전북특별자치도 PR 활동현황과 타지역 사례 비교 분석', 박하나 선문대 교수의 '전북특별자치도 PR 커뮤니케이션 기본 방향 및 단계적 PR 목표 수립전략', 홍익대 엄

남현 교수의 '전북특별자치도 PR 커뮤니케이션 전략 및 콘텐츠 개발 방안'을 각각 발표하고 토론을 이어갔다. 그 밖에 세션에서는 '한류와 엔터테인먼트',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PR 커

뮤니케이션 현상', '보건환경과 정책 PR' 등 다채롭고 참신한 주제로 학문적, 실무적 논의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현규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자치도 지역 브랜드를 열심히 알려야 하는 시기에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언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잘 귀담아들어 특별한 전북을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PR학회 흥분기 회장은 "지금까지 한국PR학회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PR의 공익적 가치 중심으로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목포시, 새 관광명소 유달유원지 쾌적하고 안전하게 가꾼다

관광객 맞이 '친절안전청결질서바가지요금근절'등 캠페인 전개



목포스카이워크 확장 및 연안 정비 등이 진행된 목포유달유원지 일대가 목포의 관광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목포시는 지난 19일, 행정철 관광객 맞이하기 위해 새롭게 단장한 유달유원지를 알리고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유달유원지 환경정화 활동 및 캠페인 행사는 유달동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유달동 주민과 원도심 상인회, (사)목포시관광협회(회장 조길현), 유달유원지 내 목포스카이워크는 2년여의 디자인개선 및 확장공사 끝에

지난 3월 목포시민과 관광객에 개방됐으며, 스카이워크 아래 모래사장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연안정비사업으로 옛 모습을 되찾았다.

또한, 목포시 해변길 30리 조성사업 구간에 유달유원지가 포함되어 오는 5월말 사업이 완료되면 해안가를 따라 펼쳐지는 노을풍경을 뒤로 다채로운 매력의 바다 산책길을 즐길 수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유달유원지 일대가 목포스카이워크 확장 및 연안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하며 불거리와 줄길거리가 있는 관광명소로 재탄생됐다"며 유달유원지 환경정화 캠페인 활동에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참여해 준 지역 주민과 상인, 유달유원지 등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본격적인 행정철을 맞아 앞으로 유달유원지 환경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환경정화 활동과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배/기자

진도군, '미소로 빛나는 노년'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 개최

65세 이상, 본인 치아 20개 이상 보유 어르신 누구나 신청 가능

진도군이 구강건강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미소로 빛나는 노년,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선발대회는 제79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올바른 구강건강 관리를 실천하고 건강한 치아를 갖고있는 어르신을 찾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관내 65세 이상(1960년 이전 출생)으로 20개 이상 본인의 건강한 치아를 보유하고 틀니를 사용

하지 않는 어르신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일까지 진도군보건소 구강보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로 문의하면 된다.

군은 ▲자연 치아 개수 ▲보철유무 치아 개수 ▲잇몸 상태 ▲구강 청결도 ▲구강건강 인지도 등 8개 항목을 심

사해 높은 점수 순으로 건치어르신 상 5명과 빛나는 미소상 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진도군보건소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아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를 통해 구강건강 관리와 건강한 치아 유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제 79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미소로 빛나는 노년, 건치 어르신 선발대회

접수기간 : 2024. 4. 22(월) ~ 4. 30(화)

대상 : 관내 65세 이상 (1960년 이전 출생자) 어르신 중 본인 치아 20개 이상 보유자 ※ 틀니사용자 제외

접수방법 : 진도군보건소 구강보건실 방문 또는 전화(☎ 061-540-6905)

심사방법 : 개인별 구강검진 및 문진 실시

선발인원 : 10명 (건치어르신상 5명, 빛나는미소상 5명)

문의사항 : 진도군보건소 구강보건실 (☎ 061-540-6905)

진도군보건소



전남도는 17일 완도 청해진스포츠펀터에서 전국 수산인 한마당 행사인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부터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4월 1일을 '수산인의 날'로 정하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을 고려해 행사가 늦어졌다. '열린 어

전국 수산인 한마당 완도서 열려

'열린 어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강국' 다짐

촌, 젊은 발걸음, 새로운 수산강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신우철 완도군수, 노동진 한국수산업총연합회장(수협중앙회장), 박상욱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회장 등 전국 수산인 1천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인과 수산업계의 노고, 그동안의 성과를 격려했다.

기념식에서는 꼬시래기(해조류) 양식 성공 등 수산물을 고부가가치화와 어업인 소득증대 공로를 인정받은 이성배 장흥군수협조합장이 은탑산업훈장을, 30여 년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후계 인력 양성과 어업 현장 애로사항 개선에 매진한 박연한 한국수산업경영인전남연합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해협(HACCIP) 및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 등 뱀장어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

영길 미항길수산(주) 대표가 국무총리상을 받는 등 수산업과 어촌 발전에 공헌한 14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강도형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정부는 수산업 가치를 높이고 살고 싶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규제 완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수산업 혁신과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등을 통해 정주 여건과 일자리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장 외부에 마련된 정책-홍보부스에서는 전남도 사랑애(愛) 서포터즈, 2026 여수세계박람회, 해양치유휴보관 등이 운영됐다. 특히 수산물 시식행사와 라이브커머스로 진행된 완도산 활천복 판매 행사는 많은 참석자의 눈길을 끌었다.

김영록 지사는 "새로운 변화와 도전

에 유연하게 대응할 기반을 갖춰야 미래 수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수산물 고품질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돈 버는 어업,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구축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수산물 생산량은 191만 톤으로 전국의 58%, 수산물 생산액은 3조 1천127억 원으로 전국의 38%, 해수면 양식어장은 18만 7천ha로 전국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인의 날'은 1969년 '어민의 날'로 시작, 1973년 '관농의 날'로 통합된 후 2011년 '어업인의 날'로 부활했다. 현재는 2015년 6월 제정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수산인의 날'로 명칭을 변경, 매년 정부 차원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광주시의 돌봄복지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구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광주광역시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이인호 부의장과 민생경제분과 위원들이 초고령사회에 지속할 수 있는 돌봄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민생경제 ▲거시금융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민생경제 분과는 복지-돌봄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주거-재난관리 등 국민 생활안정 분야에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적 실행 주체인 5개 자치구 공무원과 민간 서비스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방문진료 서비스를 시행 중인 광산구 우리동네의원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뇌졸중 환자 가정의 '방문진료' 현장을 동행했다.

자문회의는 기존 돌봄제도가 갖는 사각지대와 서비스 누수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달체계에 주목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본인이 아닌 누구라도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발견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 '돌봄콜'을 운영한다.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초고령

노인과 은둔-고립 1인가구는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지 살피는 '의무방문' 활동을 펼친다.

이를 지탱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1대 1 케어매니저' 활동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의 서비스 연계 활동이 복지분야의 만성적 병폐인 중복과 소외의 이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는 판단이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인간 존엄을 잃고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의 삶을 어떻게 구해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이야말로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돌봄 시스템의 혁신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외에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찾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만 광주의 돌봄정책을 벤치마킹한 지자체가 부산-대전 등 20곳에 달하며, 제주와 수원 등 광주 모형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강릉시와 4월 초 진주시의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주를 찾은 데 이어 5월 충북도의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다.

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정치사상학회 등 연구자들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보편적 돌봄서비스에 주목하며 이를 국가 돌봄정책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사태관리학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석학들이 광주를 찾아 클라이언트(이용자) 중심 서비스 연계 방안과 실행체계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김병수/기자

보성군,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는 보성차(茶) 3종 싱가포르 수출

4만 달러 상당의 보성 차(茶) 싱가포르 고주힌(GJH) 수출 상차식 가져

보성군은 17일 옹치면 강산농원 영농조합법인인 생산한 보성차(茶) 브랜드 3종(그린티, 블랙티, 허브티)을 싱가포르 고주힌(Goh Joo Hin Pte Ltd)사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출 상차식에는 보성군 김규웅 부군수를 비롯한 보성농협 선지영 지부장, 차산업연구소 최정 소장, 팬지데이지(주) 권윤상 대표, 강산농원 김영민 대표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첫 납품 물량은 약 4만 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12월 보성군과 싱가포르 고주힌, 팬지데이지(주)와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정 특산물에서 자란 보성차(녹차, 홍차)와 허브차를 베이스로 블렌딩하여 개발한 제품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내 백화점 및

마트에서 유통된다.

보성군은 금전 3종 차(茶) 수출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고주힌과 함께 보성의 우수 농특산물 수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주힌사의 '뉴문(New Moon) 브랜드 65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계획 중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싱가포르의 뉴문(New Moon) 브랜드로 유명한 고주힌사를 통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게 돼 한국차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맛 좋고 품질 좋은 차를 생산해 세계인이 즐기는 보성차를 만들어 차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의 '고주힌'은 1940



년도에 설립해 식품 유통을 비롯하여 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대 시장을 선도하는 동남아시아의 대표 기업 중

하나로 '뉴문(New Moon)' 브랜드가 유명한 업체이다.

최원영/기자

경북도, 산림재해복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18일 경북도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산림 재해복구사업 등 산림토목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협의회 4월 회의를 개최했다. 안전보건 협의회는 수급업체 대표와 현장대리인, 감리 관계자, 공사감독 등 150명으로 구성되며, 수급업체가 현장의 다양한 안전 위험 요소를 도출하여

구성원들이 토론해 안전보건 전반사항에 대한 개선과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매월 개최하는 회의이다. 이날 회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됐던 개인사업자 및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유예기간이 2024. 1. 27.부로 종료됨에 따라 대부분 작업환경이 두메산골인 산림토목사

안전한 산림사업공간 조성에 합심단결

업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과 이행으로 안전한 산림사업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다. 한편,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해 6~7월 내린 역대급 집중호우로 인해 영주, 문경, 예천 등 경북 북부 지역에 산사태·토사유출로 산사태 피해 149ha, 임도 피해 9.6km 등 총 677개소 산림피해 지역에 피해복구비 426억원을 투입해 6월 우기 전 완료 목표로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재완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북부지원장은 "안전보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안은 공사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울릉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장 역량강화 연수 개최

김진규 교육장,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 연결창구, 울릉교육 가족이 지역사회와 하나 되도록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의 협조 부탁"해



울릉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학교운영위원장 역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24학년도 학교운영위원장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의 역할과 의무,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주민참여예산제 등에 대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운영위원장들과의 교육 연안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 수렴 하는 정

보 교환의 시간도 가졌다. 2부에서는 지역협의회장으로는 울릉중학교 방금석 학교운영위원장, 부회장으로는 천부초등학교 김병순 학교운영위원장, 사무국장으로는 울릉고등학교 남강희 학교운영위원장 등 2024년 울릉군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장 및 임원을 선출했다. 김진규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결 창구로, 울릉 교육 가족이 지역사회와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강제/기자

'박남서 영주시장, 20일부터 북미 순방' 농특산품 판로 확대·역이민자 사업협의 나서

10일간, 농특산품 홍보 판촉 행사, '영주 K-글로벌빌리지' 사업 업무협의 및 도시재생사업 현장 답사 진행

박남서 영주시장, "이번 미국, 캐나다 방문으로 세계 최고 품질 지역 농특산품 판로를 확대하고 재외 동포들의 영주에 대한 인식 제고하겠다"고 밝혀

박남서 영주시장이 농특산품 판촉행사 및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역이민자 사업협의 등을 위해 20일부터 10일간 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른다.

박남서 시장은 순방 첫날인 21일 뉴욕 하인리히 파크(The High Line)를 방문해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답사한다. 하인리히 파크는 맨해튼 서쪽 허드슨강을 따라 과거 버려진 상업용 철도를 리모델링한 공원으로 연간 800만 명이 찾는 세계적인 폐산업시설 활용 우수사례이다.

22일에는 재외 동포들이 살던 환경과 문화를 재현하는 '영주 K-글로벌빌리지 사업'에 대해 전미주한인부동산 전문가협회의 의견 수렴 및 업무협의를 진행한다. 또, 오후에는 뉴욕 지역일간지(뉴욕 한국일보, 중앙일보) 방문 인터뷰를 통해 방미 목적을 알리며 영주시의 지역 자산을 홍보한다.

이어 24일부터 영주시수출기업협의회가 주관한 농특산품 북미 현지 시장 진입 확대를 위한 판촉행사 및 업무협약에 참석한다.

먼저 24일, LA에 있는 울타리 USA 본사 및 미국 영주총보관을 방문해 '영주시 농특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26일에는 캐나다 밴쿠버의 한인 최대 도매업체 T-BROTHERS에서 지속적인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 및 영주시 농특산품 판촉 행사와 홍보, 시식 활동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판촉행사가 영주시 농특산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북미 시장에 알리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밴쿠버 현지 한인 마켓 시장조사를 통해 농특산품의 신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

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미국, 캐나다 방문을 통해 세계 최고 품질의 지역 농특산품 판로를 확대하고 재외 동포들의 영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2024년 지방공무원 현장체험 연수 실시

포항교육지원청, 지방공무원 41명 대상 2박3일간 연수
천종복 교육장, "현장체험 연수를 통해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줄 것"당부해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수)부터 19.(금)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일원에서 지방공무원 현장체험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포항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제주도의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직장 내에서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하여 바람직한 직장문화를 형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천종복 교육장은 "현장체험 연수를

통해 직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강조 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용/기자



의성중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운영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습코칭



의성중학교는 2024'찾아가는 학부모교실 프로그램으로'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습코칭'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매년 실시하는'단위학교 찾아가는 학부모교실'의 일환으로 도내 초·중·고 및 특수

학교 150개교를 대상으로 학부모회가 요구하는 시간, 주제, 형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교육이다. 이 교육 주제는 소통(대화법), 인공지능, 메타인지 학습법 등 28개 프로그램이 있고 주어진 프로그램 외, 각 학교 학부모회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한다.

의성중학교는'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습코칭'프로그램을 선택하여 10대 자녀의 진로 진학 및 학습법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에게 자녀 지도의 해법을 제시하고 자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 교육은 학부모 2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평생교육학 박사, 진로교육 전문가이자 '10대 아들을 공기업에 입사시킨 강남엄마의 못된 자녀 교육법'을 쓴 최윤주 작가와 함께 직성의 중요성, 정체성 확립, 자기주도적 학습의 원리, 뇌와 감정의 상호관련성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전략 등 자녀 교육에 대해 많은 부모님이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와 질문들이 오갔다.

이 교육에 참여한 최○미(학부모회장) 학부모는"평소 아이의 진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교육을 계기로 공부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의 적성이 무엇인지와 그것을 찾기 위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노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금자/기자

보성 다향 대추제

제47회 보성군민의 날 5. 3.(금) 보성공설운동장 군민 화합 페스티벌, 축하공연 등

제19회 보성녹차마라톤대회 5. 4.(토) 8:00 ~ 16:00 보성공설운동장, 울. 하프 10km, 5km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5. 4.(토) ~ 5. 6.(월) 보성군문화예술회관 일원 전국 판소리, 교수, 공연단체, 주무제

제102회 어린이날 행사 5. 5.(일) 보성군 일원 먹거리, 체험마당, 놀이마당 등

제20회 일림산 철쭉문화행사 5. 4.(토) ~ 5. 6.(월) 용치면 용변리 일림산 일원

제2회 보성데일리콘서트 with 드론쇼 5. 4.(토) ~ 5. 6.(월) 농림마트 주차장(보성역 옆)

2024. 5. 3.(금) ~ 5. 7.(화)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보성 차(茶)를 활용한 공식행사, 특별행사, 기획행사, 차 문화체험, 전시 / 경연, 공연 등

● 주최 / 주관 보성차생산지 조합 | 보성다향대추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전라남도 | 보성군 |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협회

영화 '오후 네시', 제42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경쟁부문 공식 초청



19일 오달수, 장영남, 김홍파 배우가 출연하는 서스펜스 드라마 장르의 영화 '오후 네시'가 제42회 브뤼셀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경쟁부문에 공식 초청되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은 벨기에 작가 아멜리 노통브의 동명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오후 네시'는 매일 오후 4시만 되면 찾아오는 이웃 남자로 인해 평온했던 한 부부의 일상이 서서

히 악몽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서스펜스 영화다.

'오후 네시'의 주연인 김홍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견배우로서 많은 작품에서 주조연으로 출연하여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최근 왓차(드라마) 트렌드 지수1위를 차지한 '나의 해피엔드'에서 서창석(장나라분 의 아버지)역으로 미세하게 요동치는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

내며 대중들에게 완성도 높은 연기력을 보여주는 등 연기파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품격 있는 연기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 참석한 김홍파 배우는 "좋은 작품을 함께 한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오후 네시'가 국제 영화제에 공식초청 되어 매우 영광이고,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따뜻한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홍파 배우의 주요 출연작으로는 '화란',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괴기맨숀', '싱크홀', '남산의 부장들', '비스트', '배심원들', '내부자들', '국가부도의 날', '공작', '검사의전', '사바하', '말모이', '보안관', '카지노', '법쩐', '형사록1,2', '낭만닥터김사부2', '블랙독', '귀속말', '어느날', 등이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작품에서 폭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이고 있다.

최만식/기자

팝 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오늘(19일) 정규 11집 발매! 새롭게 써 내려갈 대중음악계 역사에 전 세계 주목!

지난 제66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팝 보컬 앨범 수상 연설 중 4월 19일 새 앨범 발매를 깜짝 예고했던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가 약속을 지켰다.

유니버설뮤직은 "대중음악 산업 그 자체인 테일러 스위프트가 오늘(19일) 정규 11집 [더 토처드 포에츠 디파트먼트(The Tortured Poets Department)]를 발매했다"며 "지난 앨범 [미드나잇스(Midnights)](2022)로 그래미 시상식 올해의 앨범 최다 수상자 등극 및 발매 직후 팝 역사상 최초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모두 석권, 2022년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을 기록 그리고 스포티파이와 애플 뮤직에선 각각 역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스트리밍한 앨범과 발매 첫날 가장 많이 스트리밍한 팝 앨범이라는 기록을 세운 만큼 이번 신보에도 전 세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각각 있는 보너스 4곡까지 더해 총 20곡을 수록했다.

팝스타 포스트 말론(Post Malone)과 영국 출신 밴드 플로렌스 앤 더 머신(Florence + The Machine)과 협업한 곡도 있다.

포스트 말론은 이 앨범의 오프닝 트랙 '포트나이트(Fortnight)'에 힘을 보탤 예정인 테일러 스위프트의 보컬 겸 송라이터이자 리더인 플로렌스 웰치와는 '플로리다(Florida)!!!'를 작업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단짝 프로듀서 잭 안토노프도 이번 앨범에 이름을 올렸다. 잭 안토노프는 제66회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프로듀서'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린 명실상부 최고의 프로듀서. [미드나잇스(Midnights)], [포크로어(folklore)], [에버모어(evermore)]를 비롯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8개 앨범에 참여한 바 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난 2022년 정규 10집 [미드나잇스(Midnights)] 그리고 2023년 2개의 재녹음 앨범 [스피크 나우(테일러스 버전)](Speak Now(Taylor's Version))과 [1989(테일러스 버전)](1989(Taylor's Version))] 발매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며 팬들의 사랑에 화답했다.

2023년 3월부터 미국을 시작으로 한 테일러 스위프트의 전 세계 순회공연 '디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는 전 세계를 테일러 스위프트 열풍에 밀어 넣었다.

디 에라스 투어는 일정의 반도 지나지 않아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높은 순회공연 수익인 1조 3,7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공연이 열리는 도시마다 큰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어나며 '테일러노믹스(Tayloronomics)'라는 경제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이로써 테일러 스위프트는 2023년 예술인 최초로 타임지 '올해의 인물'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많은 빌보드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최초로 빌보드 핫 100 차트에서 동시에 1위부터 10위를 석권한 아티스트, 가장 많은 빌보드 핫 100 차트 진입 노래를 가진 여성 아티스트(총 232곡), 가장 긴 길이로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기록한 노래 '올 투 웰(테일러스 버전)'(10분 버전)(All Too Well(Taylor's Version))' 보유자, 각기 다른 앨범의 곡 3개를 빌보드 핫 100 차트 톱 10 안에 넣은 최초의 여성 아티스트, 1년 안에 3개 앨범을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린 최초의 여성 아티스트 등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줬다.

최만식/기자



배우 임원희, 첫 개인전 '시간을 건너 뛰어; 소년의 행복한 환상' 개최

예능계의 블루칩 텔런트 임원희가 서래마을의 씨포먼트갤러리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시간을 건너 뛰어; 소년의 행복한 환상]이라는 타이틀 아래, 2024년 4월 24일부터 5월 13일까지(휴관일; 인스타그램 참조)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배우이자 예능인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면모를 선보이는 임원희가 지금까지 축적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선보인다.

'시간을 건너 뛰어; 소년의 행복한 환상'은 전시 제목 그대로 어린 시절의 순수한 상상력과 동심을 추억하며 새로운 창작세계를 탐구하는 임원희의 작품세계를 담은 것이다.

임원희의 작품은 독특한 감성과 예술적 재능이 조화를 이루어 특별한 분위기를 소환한다. 그의 그림들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상상력을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관객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작가는 그림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달하며, 관람자들은 그의 작품을 통해 자유롭고 아름다운 상상력과 추억을 경험할 수 있다.

더불어, 임원희의 작품은 세세한 디테일 속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와 표현이 담겨져 있어, 관람자들에게 새로운 발견과 생각을 선사한다.

이번 전시 기간 중, 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임원희 작가와 그의 작품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관람자들을 위한 일일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약한 관람객들은 임원희 작가와의 직접적인 소통과 함께 작품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일일 도슨트를 통해 함께 작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도슨트 프로그램은 4월 26일 4시에 진행되며 아티스트토크는 4월 26일 6시에 진행된다.

씨포먼트갤러리 오수정 대표는 "임원희 작가의 작품을 통해 그의 내면과 예술적 심성이 빛을 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원희의 작품은 투박하지만

독특한 표현방식을 갖추고 있으며, 기교가 아닌 순수한 표출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재미있고 감동적인 순간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작가의 새로운 도전과 창의적인 작업은 예술계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시간을 건너 뛰어; 소년의 행복한 환상"은 어린 시절의 추억과 상상력을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만식/기자

'7인의 부활' 황정음 X 이정신, 숨겨진 관계 드러난다! '반전 예고'

'7인의 부활' 황정음과 이정신의 숨겨진 관계가 드러난다.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연출 오준혁·오승희, 극본 김순옥, 제작 초록미디어·스튜디오S) 측은 19일, 금라희(황정음 분)와 황찬성(이정신 분)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예고했다. 특히 가득한 한모네(이유비 분)의 날 선 눈빛도 포착돼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방송에서는 '악'의 공동체를 향한 금라희의 치밀한 복수가 이어졌다. 여기에 '메두사(=금라희/황정음 분)'라고 주장하며 민도혁(이준 분)에게 접근해 온 황찬성(이정신 분)의 반전 민낯은 충격을 선사했다.

그의 목적은 이휘소(민영기 분)가 만든 '루카'였고, 한모네를 향해 집착을 보이는 섬뜩한 모습 또한 소름을 유발

하며 향후 전개를 더욱 궁금케 했다.

이날 공개된 사진 속 금라희와 황찬성의 모습은 긴장감을 한층 끌어 올린다. 금라희의 매서운 눈빛과 함께 더는 온화한 가면을 쓸 필요도 없다는 듯 광기를 드러낸 황찬성의 표정도 섬뜩함을 자아낸다.

앞서 황찬성이 '메두사' 금라희와 은밀한 연락을 주고받고, '세이브' 프로그램을 이용해 민도혁과 연락하는 금라희의 모습은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짐작케 했다. 금라희와 황찬성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지, 이들의 움직임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궁금해진다.

황찬성의 실체를 마주한 이후, 다시금 황찬성을 찾은 한모네의 모습도 포착됐다. 공개된 예고편에서 황찬성에게 "금라희, 내 손으로 죽이게 해줘요"라

는 한모네의 서늘한 투박이 담겨 궁금증을 자극했다.

미소를 머금은 그의 얼굴에서 왠지 모를 살기가 스친다. 과연 황찬성이 한모네가 내민 손을 받아들일지 호기심을 증폭시킨다.

오늘(19일) 방송되는 7회에서 금라희, 황찬성의 관계와 '메두사'의 정체가 발각된다. 그리고 양진모(윤종훈 분), 고명지(조윤희 분)를 단죄하기 위한 금라희의 다음 계획이 펼쳐진다.

'7인의 부활' 제작진은 "금라희에게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밝혀진다"라면서 "6인이 금라희의 설계대로 하나둘 무너지기 시작한 가운데 처절한 복수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고양특례시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지구환경과 꽃
Flower in the Earth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용인특례시, 강릉·인천 방향 통행 원활하게 하는 고속도로 건설 추진

제2영동 연결 의왕~용인 모현~광주 민자고속도로 건설 주력... 적격성 조사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



용인특례시는 용인시민의 강릉 방향과 인천공항 방향 통행에 큰 도움이 될 제2영동고속도로 연결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2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시 전역을 신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촘촘히 연결하는 'L자형 3축 도로망 계획'을 세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의왕~용인 모현~광주 민자고속도로를 반대체 고속도로(화성~용인 남사·이동~안성 민자고속도로),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와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조속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제2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GS건설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돼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후속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를 밟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치면 제3차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인천부터 강릉까지 연결하는 제2영동고속도로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도록 계획됐다. 인천~성남 구간에는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됐고 광주~강릉 구간의 경우 원주까지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후에는 영동고속도로로 이어진다.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는 총 길이 32km로, 시는 용인특례시 구간인 모현을 능원리 국도 43호선 인근에 모현IC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처인구 모현읍 시민들은 물론이고 수지구 죽전 지역, 기흥구 보동정 지역 등의 시민들도 모현IC를 통해 동쪽으로는 제2영동고속도로로 원주, 이어 영동고속도로로 강릉까지, 서쪽으로는 제2경인고속도로로 판교와 안양, 인천공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고속도로를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오폐JCT에서 접속하도록 할 방침이어서 이를 이용하는 용인 시민들이 수도권 남쪽으로 이동하는 데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상일 시장은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모현IC와 오폐JCT를 통해 용인특례시민이 수도권 내 동서 방향 이동은 물론이고 강릉·인천 방향으로의 이동도 편리해 질 것"이라며 "용인의 반대체 산업 생태계 확장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로망 확충은 긴요한 일인 만큼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의왕~용인 모현~광주 고속도로를 제2경인고속도로(북청계IC)와 제2영동고속도로(경기광주JCT)와 연결하도록 총연장 32.0km(본선 30.5km, 지선 1.5km)의 양복 4차선 도로로 계획했으며, 모현IC를 포함해 5개 분기점과 4개 나들목, 1개 휴게소 등을 함께 건설한다는 계획에 따라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고, 이 사업은 그 과정을 통과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이동·남사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남쪽을 지나게 될 반대체 고속도로(화성 양감~용인 남사·이동~안성 일죽 민자고속도로)는 지난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건설의지를 확실하게 밝힌 만큼 건설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시가 계속 잘 챙길 것"이라며 "용인 처인에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용인~성남 민자고속도로도 건설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2025 APEC 정상회의는 반드시 경주, 문명 보다 문화를 보여야

지역균형발전, APEC의 포용적 성장가치(소규모 도시개발) 실현 최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미·일·러·중 세계 4강을 비롯해 태평양 연안의 21개국 정상·각료·언론인 등 2만 여명 이상이 한국을 방문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2005년 부산 개최 후 20년 만에 열리는 국제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문화와 전통을 소개하고 개도국에는 한국의 경제기적을 공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APEC이 경주에 유치된다면 국내의 관광객 증가 등 생산 유발 18,863억, 부가가치 유발 8,852억 등 총 27,715억의 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되며 무역 자유화를 통한 다양한 무역 협정 및 파트너십 구축 등 각국의 관계 격상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상회의는 단순히 회의가 아닌 우리의 5천년 유구한 역사문화와 한국의 경제발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격 상승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제회의이자 외교·경제·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선보이는 자리다. 발전된 문명을 내세우기보다 한 차원 높은 문화의 힘을 보여줘야 할 시기다. 한마디로 이제 겉대기가 아닌 말맹이를 들어내 보여야 하는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 K-팝, K-드라마, K-무비 등 한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는 불국사, 석굴암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4점, 국가문화재 등 360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의 보고이다. 세계 여행객들의 바이블로 불리는 '론리플래닛', '내셔널지오그래픽', 타임지 등 세계 최고의 저널리스트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경주를 소개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 고 상상해 보자,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은 형형색색 단풍이 최절정에 달하는 시기다. 세계 정상과 배우자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월정교 등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진다면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일 것이다. 천년고도 경주가 세계로 알려지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다.

포용적 성장가치와 지방시대 지역균형발전 실현

2020년 말레이시아 정상회의에서 무역과 투자 자유화에 중점을 둔 '보고선언'을 완료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채택했다. 이 미래 비전의 핵심은 포용적 지속가능한 성장이다. 간단히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적 측면에서 보자면 지역균형발전으로 치환된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APEC 유치 4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주, 인천, 부산, 제주 중 유일한 지방소도시는 경주뿐이다. APEC의 포용적 성장가치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경주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 멕시코 로스카보스(2002),

러시아 블라디보스톡(2012), 인도네시아 발리(2013), 베트남 다낭(2017) 등 해외 성공 개최 사례를 보면 경주는 더욱 설득력을 가진다.

준비된 국제회의도시 경주 ...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 환경

2014년 경주가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고, 2015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의 개관 이후 국제회의도시로서 꾸준히 마이스(MICE)산업 활성화 전략을 펼쳐왔다. 그간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 등 다양한 분야의 대형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노하우를 갖췄다. 특히 2022년 보문관광단지 일원 178만㎡가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선정되어 APEC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고 주회의장인 컨벤션센터 증축도 2024년에 마무리 된다. 특히 보문단지를 APEC 정상회의를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문단지는 숙박, 회의, 사무공간과 전시, 미디어센터 등 모든 주요시설을 가까운 거리에 배치할 수 있어 정상회의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최고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인근의 포항경주공항을 비롯해 1시간대의 김해·대구·울산공항과 KTX경주역, 경부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완벽한 교통체계도 큰 장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상 경호와 안전의 최적 모델

국제적인 정상회의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경호와 안전이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경우 국내·외 NGO 단체들의 찬반집회 등 경호와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로 인해 교통통제와 각종 보안 요구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 정상회의가 열릴 보문관광단지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비롯한 모든 시설이 3분 거리이내에 위치해 이동 동선이 매우 짧고, 다른 경쟁도시와 달리 바다와 접해있지 않아 해상은 물론 시가지, 주요도로 등을 봉쇄해야할 시민불편은 전혀 없다. 또한 지형 특성상 호리병처럼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경호 경비에 가장 최적화된 장소다. 시민들의 주 생활권과 5km 이상 떨어져 있고, 높은 고층건물이 없어 정상 경호와 안전에 있어 완벽한 문제가 가능하다. 2005년 APEC이 부산에서 개최될 때 한미정상회담은 경주 보문단지에서 열린 것은 그만큼 경호·안전 최적지임을 반증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기적 경험 공유

경주는 국제적인 관광도시이기도 하지만 첨단과학산업도시이기도 하다. 한수원 본사, 월성원전, 원전의 블루오션인 소형모듈원자로(SMR) R&D 전초기지 문주대왕과학연구소, 중수해체 연구원, 양성자가속기센터,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등 원전·미래차 첨단과학산업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한국의 원전과 에너지산업을 세일즈 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영남권 산업벨트의 중

심허브로서 인접한 울산의 완성차·조선, 포항의 철강·2차전지, 구미 전자·반도체, 안동의 바이오산업 등과 연계한 다양한 산업시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기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지이기도 하다.

25만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의지와 결의 ... APEC 경주유치 146만 지지

경주는 20년 전 태권도공원 유치 무산의 뼈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 정치적 윤희리를 떠나 이번 APEC 정상회의의 만큼은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일념으로 전력투구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불과 85일 만에 25만 경주인구 보다 약 6배 많은 146만3874명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 범시민추진위원회 중심을 유관기관과 단체는 물론 시민 모두가 한마음을 한뜻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나선 결과였다. 현재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광역 대도시와의 가장 큰 차이점도 바로 시민들의 뜨거운 유치 의지와 결의가 아닌가 싶다.

APEC 유치 나선 경주시, 손님맞이 캠페인 본격 전개

시는 12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개최 도시에 걸맞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청 앞천출에서 범시민추진위, 시민사회단체, 외식업계, 공무원, 일산시민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선진시민의식 및 손님맞이 캠페인' 전개를 선포했다.

친찬하기, 주인의식 갖기, 공익 우선, 배려하기 등 4대 과제를 생활환경, 교통, 행사질서 등 3대 기초질서 지키기 등 실천과제 78개를 발굴하여 전 시민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특히,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바가지요금과 호객행위를 없애고 관계기관·민간단체와 협업해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 APEC 경주유치 명분과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주낙영 시장은 "APEC 정상회의는 단순 회의나 도시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한국의 역사와 문화, 경제 발전을 전 세계에 알리는 국격 상승과 국가 자긍심을 고취하는 국제회의"라며, "지방화 시대에 지역균형발전과 APEC의 포용적 성장가치 실현 최적 도시 경주에 유치돼야할 명분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장 동력과 발전 가능성면에서도 경북과 경주는 APEC 개최 시 국내 어느 곳 보다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PEC 유치 146만 경주유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서면심사·현장실사 철저한 준비 등 타 도시와 차별화된 유치전략, 중앙정부 등 전방위 유치세력, 민간주도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전개 등 마지막까지 반틈없이 준비하여 반드시 유치하도록 전 행정력을 올린 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윤타용/기자

20대 1 경쟁률 오세훈표 안심소득... 3단계 참여 492가구 최종 선정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 선정... 복지사각지대 발굴 집중

지난 1월 모집 결과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오세훈표 소득보장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할 492가구가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심으로 선발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1월 2일~12일 3단계 참여자 모집결과 총 10,197가구가 접수했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예비가구 1,514가구를 1차로 선정했다. 이후 소득·재산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492가구를 확정했다.

안심소득은 기존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부분을 채워주는 소득보장 실험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여정사업 중 하나다.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로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실제로 지난 1년 6개월여간의 시범사업 결과 참여가구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에스테르 뒤플로 MIT교수도 "한국 등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는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지원이 낫다"며 "내가 만약 사업을 설계해도 이와 비슷하게 했을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올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과 갑작스러운 위기에 내몰렸으나 까다로운 선별조건으로 복지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중점 발굴·선정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가족돌봄청(소)년(9세~34세)에 대해선 서울시가 최초로 정기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을 적극적으로 돕는 사업이다.

올해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가족돌봄청(소)년'은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는 364가구다. 1인 가구가 35%, 연령별로는 40~64세가 48.4%로 가장 높았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 26일을 시작으로 내년 3월까지 1년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를 매월 받는다.

단,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서울형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 월세 중복해 받을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8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3단계 약정식'을 개최한다. 이날 약정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신규대상 약 50가구가 참석해 그간의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약정식에서 오 시장은 안심소득 수급자의 생활변화 등을 청취하고, 약정서 등 서류를 직접 받으며 신규 참여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한다.

안심소득 대상자 선정 이후 빌딩 경비로 취직 한 강OO씨(1단계), 지적장애 아이를 키우며 안심소득으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김OO(2단계) 사례부터 안심소득으로 연체된 건보료를 납입 후 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저소득 위기가구 김OO씨(3단계) 등이 참여한다.

약정식에서는 참여 가구를 응원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우선 참여가구의 희망 메시지를 꾸며진 '소원나무'를 전시하고, 오 시장이 소원을 직접 뽑아 읽어주는 코너를 마련했다.

또 '이동사진관'을 설치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가족사진'을 촬영해주고 가족돌봄청년과 1인가구에게는 취업에 도움이 되는 증명사진도 찍어준다.

이외에도 갑작스러운 가족돌봄으로 생계 부담에 직면해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알려주는 원스톱 상담부서도 당일 현장에서 운영된다. 현장상담을 받지 못한 가족돌봄청년은 서울복지재단 내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를 연락하면 1:1 맞춤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국내 최초 소득보장정책 실험'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복지제도 문제점 중 하나인 재산의 소득환산과 근로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 복잡한 입증 절차를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보장 수준을 기존 중위소득 85%까지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22년에 중위소득 50%·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484가구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23년에는 대상을 중위소득 85% 이하로 확대, 1,100가구를 선정해 '25년 6월까지 지원한다.

시는 안심소득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참여한 5,603가구(지원집단 2,076가구, 비교집단 3,527가구)를 대상으로 '26년까지 6개월 단위 설문조사 실시 후,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1차 중간조사 결과('23.12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률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 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와 소비재는 물론 자존감이 높아지고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시민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희망을 꿀꿀 수 있는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안심소득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해 차세대 복지 표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부산광역시 자원봉사로 행복한 도시 부산! 온기나눔으로 행복한 도시 부산!

2024 제10회 부산자원봉사축제(V-Festival) 개최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는 4.20 14시부터 부산역 광장 및 북항 친수공원 일원에서 '2024 제10회 부산자원봉사축제(V-Festival)'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한 '부산자원봉사축제(V-Festival)'는 올해로 10회를 맞이하였으며, 올해는 특히 10월 22일부터 개최 예정인 세계 최대 자원봉사축제인 '제27회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는 걸기 대외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부산역 광장에서 개회식, 자원봉사홍보대사 위촉, 자원봉사 체험관 등이 운영될 예정이며 개회식 이후에는 북항 친수공원 일대에서 걸기 대외로 진행된다.

부산역 광장에서는 자원봉사체험관(부산자원봉사는행 홍보관, 팽업는 롤렛돌리기 등)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식전공연 이후 진행되는 개회식에서는 행정부시장님께서 직접 금배지 수상자(15명/누적 봉사시간 3,000시간 이상, 연 500시간 이상)에게 시상하고 의장, 교육감, 동구청장 등의 축사로 행사를 축하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온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하여 '온기나눔으로 행복한 도시! 부산' 만들기 시인들도 함께할 예정이다. 부산 출신 연예인 모임(갈매기의 꿈, 갈꿈꾸)을 자원봉사 홍보대사 위촉, 배우 변우민 지대한 참여 위촉식 진행

또한 부산 출신 연예인 모임인 갈매기의 꿈(갈꿈꾸)이 부산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해주기로 하였으며 개회식에서 배우 변우민(회장), 배우 지대한(부회장) 등에게 위촉장을

전달하여 부산의 자원봉사가 갈매기의 꿈처럼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개회식 이후 북항 친수공원 일원에서 참가자 모두가 함께 즐기면서 걸을 수 있도록 버스킹 공연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블록체인기반 부산자원봉사는행' 시범 운영이 시작되는 해로 당일 어플 설치 및 회원가입 내용이 확인되면 선착순 기념품을 증정하고, 어플 '봉사미션'과 함께 걸기대회 완보자에게도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참여하기 전에 갤럭시폰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부산자원봉사는행' 어플을 설치. 회원가입을 하고 당일 참여한다면 더 편리하게 봉사미션 활동이 가능하다.

박경옥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장은 "올해는 '블록체인기반 부산자원봉사는행'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10월 22일부터 4일간 세계 최대 자원봉사축제인 '제27회 부산세계자원봉사대회'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개최되는 해로 그야말로 자원봉사로 행복한 도시 부산!으로 한 걸음 더 내딛게 되었다"며 축제에 참여하여 마음껏 즐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제63회 이순신축제, 많이 와주세요"

홍보실 직원들과 충남도청 방문...공무원·민원인 대상 홍보캠페인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과 홍보실 직원들이 19일 충남도청을 찾아 오는 24~28일 열리는 '아트밸리 아산 제63회 성웅이순신축제(이하 이순신축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조 부시장과 직원들은 축제 홍보용 조끼와 어깨띠를 착용하고 출근길 공무원과 도청을 찾은 민원인들에게 홍보전단지, 물티슈, 아산 시그니처(상징) 메모지 등의 홍보용품을 배부하며 이순신 축제 방문을 당부했다.

조 부시장은 도청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을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서 축제장 방문을 다짐받는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했다.

특히 전형식 충남도정무부지사는 도청에 출근하다 조 부시장을 만나 축제의 성공을 지원하는 기념사진을 함께 촬영하면서 "이순신축제가 전국민이 찾는 축제라 거듭나길 바란다"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조 부시장은 "지난해 이순신 축제가 전면 개편되면서 3일간 11만 명의 방문객이 찾은 정도로 성공적이었다"면서 "올해는 '노젓기 대회', '전술신호연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가돼 더욱 기억에 남을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또 아산시 홍보실 전략홍보팀 직원들은 신항면에 위치한 경찰대학교,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별도의 이순신 축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전략홍보팀 직원들은 경찰대학 학생 300여 명, 경찰인재개발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식당·카페 등을 돌며 전단지와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축제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이번 이순신축제는 '청년 이순신,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24일 릴레이버스킹 ▲25일 노젓기대회 ▲26일 개막식(428합창단, 민우혁, 불꽃쇼 등) ▲27일 학익진 맨스대첩, 군악의장 거리 퍼레이드 ▲28일 군악의장공연, 포레스텔라, 폐막식(불꽃쇼)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원호/기자

인천 남동문화재단, 인천어린이공연예술축제 아시테지 in 인천 참여

3년째 이어지는 아시테지코리아와 인천 공공기관의 뜻깊은 연대

인천 남동문화재단은 (사)국제야동 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와 함께 오는 5~7월 약 3개월간 진행되는 어린이를 위한 공연예술축제에 참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시테지 코리아는 전 세계 87개국 네트워크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을 위한 200여 공연예술 전문단체들이 함께하는 단체이다.

'2024 인천 어린이공연 예술축제: 아시테지 in 인천'은 지난 2022년 인천을 대표하는 10개의 공공기관과 아시테지코리아가 인천 지역의 어린이·청소년 문화예술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인천 어린이에게 양질의 공연을 선보이겠다는 목표로 시작된 축제는 지난 2년간 색다른 기획과 안정적인 운영으로 호평받았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정도로 협회와 공공기관 협업의 모범사례로 주목받았다.

올해 축제에는 남동문화재단 외에도

미추홀학산문화원,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인천문화재단, 인천서구문화재단, 중구문화재단까지 6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로 102주년을 맞이한 5월 5일 (일) 어린이날, 화려하게 포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영종역사관 영종진 야외 무대,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 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 학산생활문화센터 학산소극장, 가정생활문화센터, 트라이보울, 청라블루노바홀까지 총 7개의 장소에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공간서커스 살롱의 '함!?', 극단 보물의 '목각인형 콘서트', 사단법인 하늘에의 '년 특별하단다', 극단 아리의 '나무가 들려주는 사랑이야기', 유상통프로젝트의 '별주부전에 끼여든 인어공주', 극단 마루한의 '이야기 파시오', 극단 로,기,나라의 '오늘, 오늘이의 노래', 64J(줄)의 '목림삼(木林森)'이 그 주인공이다.

국내 공식초청과 공연에 이어 축제의 마지막은 해외 공연팀이 장식한다.

프랑스와 캐나다 예술가가 만나 결성한 르쁘띠 데야프르 & 라빠베스의 'The Problem with pink'가 관객들과 만난다.

남동문화재단은 5월 11일 11시, 14시에 남동소래아트홀 소래극장에서 뮤지컬 '년 특별하단다'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인터파크 티켓과 엔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김중남/기자



신안 해변에서 펼쳐는 세계김밥페스타 개봉박두!

(주)이마트24와 협업 개최, 김밥 경연 본선 및 체험행사 다양

신안군 자은도 뮤지엄파크에서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2024 신안세계김밥페스타'가 개최된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K-김밥월드컵'도 같이 진행된다.

지난 12일 전국의 참가자들이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오를 20팀이 가려졌다.

이번 행사는 (주)이마트24와 손잡고 더욱 풍성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본선에 오른 20팀 중 대회 수상작은 편의점 김밥으로 만들어져 전국 6,600여 매장에서 판매할 계획으로 전 국민이 신안김밥을 맛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안에서 생산되는 김, 전복, 홍어, 톳, 대파, 양파 등의 식재료를 이용해 홀어카츠김밥, 소금김밥, 정원김밥, 바다김밥 등 6종 김밥을 자체 개발했으며, 행사 기간 2,000원부터 7,000원까지 착한가격에 판매할 예정이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대한민국 조리명장인 안유성 명장과 함께하는 '너 내제자가 돼라!'와 식재료의 천국인 신안의 식재료 무작위로 뽑아 즉석 김밥 만드는 Live 신안 김밥연구소, 세계 최고

밥물리에 찾기도 등 다양한 푸드쇼도 진행한다.

자은도 해변에서 개최되는 김밥페스타는 피크닉가든과 김밥 만들기 체험존,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하며 페스타에 참여한 모든 관광객에게 신안쌀, 땅콩강정, 말린톳 등 2,000개 경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또한 행사장 일원에서는 '100+4 피아노섬 축제'가 동시에 개최되어 두 개의 축제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우리 군은 우수한 농수산물 많이 생산되는 김밥의 일번지로서 김밥페스타를 통한 쌀 소비 촉진과 홍보로 농어민을 돕겠다"라면서 "신안김밥페스타를 세

김영진/기자



산소카페 청송에서 "리셋"(Re:set)

"물러가라! 코로나" 청정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 재충전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된 주왕산과 주산지, 세계지질공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천혜의 신성계곡, 백일홍 만발한 청송의 새로운 랜드마크, 산소카페 청송정원...

산소카페 청송군은 일상에 지친 삶을 재충전하는 생태힐링관광의 대명사입니다.

리셋으로 리프레쉬!
힐링은 역시 산소카페 청송군입니다.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관계자 격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9일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각 시·도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지역별 비상진료체계를 확인·점검하는 등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서남병원은 서울특별시 설립한 공공종합병원으로 2011년 5월 27일 개원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소아재활치료실을 비롯한 여러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의료진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응급환자 분산 이송 대책, 환자 쉼림에 대비한 병상 확보, 필수·지역의료 대비·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서남병원, 서울시 관계자와 지자체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공공병원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며, “행정안전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민들께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민관합동점검 실시

평택시는 지난 18일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세교동 영신지구 내에 있는 건설현장 2개소에 대해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합동 점검에는 평택시 노동안전지킴이와 평택시 관련 부서 공무원은 물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 관계자들이 참여해 보다 내실있는 점검을 진행했다.

합동 점검에서는 스개인보호구 착용

용 △주요 재해(추락·끼임·충돌·화재·폭발 등) 예방조치 △관리대상 유해물질 관리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노동안전지킴이들의 지속적인 산업현장 점검과 지도를 통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인천시, 노후·고위험 시설 590개소 집중안전점검

4.22일~6.21일까지, 2024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인천광역시시는 정부의 안전대전환 추진과 관련해 오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시 관내부서, 군·구, 공사·공단·체육회와 함께 노후·고위험 시설 전반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해 위험 요인을 발굴·해소하는 재난대비 활동이다.

올해 점검대상시설은 590개소로 어린이 이용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낚시어선 등의 시설과 주민들이 점검을 신청한 시설들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대상에는 어린이 이용시설을 필수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실시 여부를 점검해 어린이 안전보호에 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월 발생한 영흥도 선재대교 하부공간 전력케이블 화재로 영흥도 주민의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 교량 점검 시에는 하부공간 시설물까지 꼼꼼히 점검해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박덕수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집중안전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점

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4월 23일 집중안전점검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해 참가기관의 준비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시설은 관리주체와 분야별 재난안전전문가로 구성된 152명의 헬프미 안전점검단과 시민단체가 함께 점검할 예정이며, 안전점검 시에는 사물인터넷(IOT) 감지기 측정자료도 활용해 감사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가정용과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해 시민들이 직접 안전점검에 참여토록 해 집중안전점검의 이해와 안전문화 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시급한 공공시설물은 예산을 활용해 즉시 보수·보강 조치할 계획이며, 추가 진단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에 재난특별교부세 지원요청 등을 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시설로 보수·보강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등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난위험요소 해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위험요인 해소 및 안전관리실태와 점검 체계 확립을 통해 ‘시민을 행복하게 인천은 안전하게’ 안전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남/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자치구내 지역 지킴이대상 현장민원 순회교육 실시

시민의 역량을 활용하여 시민불편사항 조기 발견 및 사각지대 최소화 기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내 지역 지킴이’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 22일 용산구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8개 자치구 대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현장민원을 총괄하는 부서로 시민불편 사항의 선제적 신고를 도모하기 위해 자치구 동별로 ‘내 지역 지킴이’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매일 서울시 응답소로 접수된 현장민원의 처리현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현장민원 순회교육은 용산구, 동대문구, 동작구, 은평구, 강서구, 중구, 관악구, 마포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작년에는 10개 자치구 1,241명의 ‘내지역지킴이’ 대상 순회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순회교육에 참석하고 현장민원 신고 실적이 있는 지킴이들에게 ‘자원봉사’ 시간 인정을 통해 지킴이들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부여할 예정이다.

내 지역 각 동별 취약 요소를 잘 알고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25개 구 5,037명의 ‘내 지역 지킴이’는 작년 한 해 동안 총 17만 5,694건의 시민 불편사항을 신고하여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했다.

4월 22일 실시하는 용산구의 ‘내 지역 지킴이’ 173명은 작년에 3,337건 신고하여 평균 19건의 신고를 기록했



으며 내지역지킴이 신고 활성화 간담회, 야간 현장민원 모니터링, 관내 취약시설 현장 합동점검, 현장민원 사례 공유 등을 진행하여 우수한 내지역지킴이 운영을 보여주었으며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작년 한 해 지킴이 활동을 통해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의 현장민원 활성화 필요성 및 ‘내지역 지킴이’ 역할에 대한 특강과 함께 담당 사무관의 현장민원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 실무교육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용학 위원장은 특강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 현장에서 안전 및 시민 불편 사항을 신고하여 담당 기관에서 신속히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지역 지킴이’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고 서울시민과 서울시 및 자치구 등 행정기관이 협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실기 좋은 도시’ 서울을 만들어갈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현장민원은 120다산콜센터,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앱’ 또는 서울 스마트불편신고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는 현장민원은 모두 서울시 응답소로 접수되고, 서울시 및 각 자치구에서는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 확인 후 안내 등 정해진 처리기한 내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구 내 지역 지킴이 요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상 속 시민불편 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시민불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내가 하는 ‘시민불편신고’ 라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안전한 도시 서울 조성이라는 큰 물결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GURYE

지리산의 넉넉함을 담은 인정 가득한 곳

매실 산수유 오이

경북교육청, '교육행정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경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의성군에 있는 의성종합운동장에서 일반직 공무원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6회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인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교육행정인 한마음체육대회는 도내 22개 시군지역에서 근무하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직원 상호 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즐거운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0

함께하는 우리! 하나 되는 교육행정인!

년 경주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는 임종식 교육감, 이연승 노조위원장,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윤승우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윤종호.권광택.정한석.조용진 교육위원,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좌기위원장, 안국현 의성 부군수, 최대명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부회장, 김중철 학부모회연합회장,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올해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어린이 바운스 등 다양한 참여 체험 행사 운영으로 직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

기는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이날 대회에는 400m 계주, 협동 공티기기, 신발 양궁, 제기차기 등 4개 종목에 23개 팀이 출전해 종합 1위는 의성교육지원청, 종합 2위는 영덕교육지원청, 종합 3위는 예천교육지원청, 종합 4위는 포항교육지원청이 차지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금까지 따뜻한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라며,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 화합하며 맘껏 즐기는 재충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4학년도 영덕 Wee센터 학업중단예방업무 담당자 연수

마음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언어 '색채 테라피'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18일(목), 관내 초·중·고 학업중단예방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방법 및 유의점에 대해서 안내할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학생들의 현황 및 참여학생 관리 지침들에 대해 안내해 학업중단 숙려제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또한 Wee센터의 학업중단예방 특별프로그램 중 하나를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실시되는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이 되도록 진행되었다. 연수에 참여한 담당 교사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업중단위기 학생 관리 방안에 대해 함께 공유하게 되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직접 학업중단예방 특별프

로그램을 경험해봄으로써 학업중단에 방에 도움이 되어 좋았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유인한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업중단예방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이해 및 적절한 개입으로 학생들의 심리 지원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경북교육청,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강사 강원래, '다시 꾸는 나의 꿈' 감동적 강연 임종식 교육감, "장애를 극복하고 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 학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과 장애 공감 문화 확산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혀



경북교육청은 지난 19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본청 용비관에서 교육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시 꾸는 우리들의 꿈'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식개

선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해소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을 증진하고 장애 공감 문화 확산과 모든 사람에 대한 인권 친화적 직장 문화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안동지역 특수학교인 안동영명학교 중학부 학생의 졸업기 소로 시작했다. 음악 졸업기와 댄스를 통해서 끼를 발견하고 재능을 키우는 노력으로 동아리, 축제, 각종 대회 등에서 끼를 맘껏 발산해 온 장애 학생의 역동적인 공연은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를 끌어냈다.

뒤이어 구미혜당학교 전공과 학생의 색소폰 연주는 뛰어난 음악적 기량을 선보여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 어려운 형편과 장애를 뛰어넘어, 타고난 감각으로 색소폰을 연주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학생이다. 이날 멋진 공연을 선보인 두 학생은 경북교육청 2024년 장애 학생 문화예술 재능 키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학생들이기도 하다. 2부 행사로 진행된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강원래 강사의 '다시 꾸는 나의 꿈'이라는 주제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강원래 강사는 유명 가수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들려주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하여 교육행정기관과 교직원들이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경북교육청은 해마다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 학생들에게 마음속 깊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 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2024 구미-나주교육 교류 협력상생을 위한 워크숍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19일(금),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협력과 상생의 영호남 교육을 위한 '2024 구미-나주교육 교류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 개최식에는 구미교육지원청 남성관 교육장, 나주교육지원청 변정민 교육장 외 100명의 교육관계자와 경상북도교육위원회 위원,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대표, 학부모회 대표, 녹색어머니회, 학부모자원봉사자회, 안전자원봉사자회, 학생선도단 등 주요 내빈과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 120여 명을 초청하여 실시되었다. 구미-나주교육 교류 워크숍은 '경상

북도교육청과 전라남도 교육청 업무협약(2022.12.22.)'에 따라 영호남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서로 교류함으로써 함께 배우며 지속발전 가능한 교육협력 모델을 개발하고자 2023년부터 재개된 사업으로, 구미교육지원청은 나주교육지원청과 교육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시간 가량 이어진 워크숍에서는 두 지역 교육장의 환영사와 답사, 경상북도의회 윤종호 부위원장, 황두영 의원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자치와 협치'를 혁신하는 나주교육'과 '디지털로 누리는 새로운 구미교육'의 방향을 소개하였고, 경북미래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구미봉곡초등학교, 경북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구미원당초등학교의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참여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갈채를 받았다. 남성관 교육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구미-나주 지역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교류를 추진하여 소통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구미-나주교육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칠곡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영재교육 첫수업을 여는 개강식

재능을 키우고 잠재력을 계발하는 더채움 영재교육

칠곡교육지원청 부설영재교육원은 지난 17일(수), 칠곡학교교육지원센터 영재교육원 및 발명교육센터에서 4개 과정 51명 영재교육대상자 및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2024 칠곡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개강식'을 하였다. 칠곡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은 초등과학, 초등발명, 중등수학, 중등융합과학 4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입학생 51명을 대상으로 재능을 키우고 잠재력을 계발하는 더채움 영재교육을 위해 과정별 5~7개의 통합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강식은 영재원장 격려사로 시작으로 학생대표 선서, 영재교육원장의 입

학허가 순으로 진행되었고 위촉된 영재교육 수업 강사 20명 및 과정별 영재교육 과정을 안내하였다. 특히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 특성별 안전맞춤교육도 실시하였다. 2024 영재교육 과정은 학기 중 출석 수업, 방학 중 집중 수업, 영재 캠프, 현장 체험학습, 산출물 대회 등 연간 120시간으로 편성되어 주제별 프로젝트 학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 원장은 영재수업에 임하는 학생에게 "영재교육을 통해 협업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계발하여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고 "영재교육원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성실하게 수업

심 프로젝트 학습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개강식에 앞서 학생, 학부모 및 영재지도강사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과정별로 밴드(Band)를 개설하여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서로 공유하고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칠곡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오홍현 원장은 영재수업에 임하는 학생에게 "영재교육을 통해 협업 능력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진 재능과 잠재력을 계발하여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고 "영재교육원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성실하게 수업



에 참여해 달라."고 하였다. 또 영재교육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과함께 자녀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안내심을 갖고 지지와 응원을 부탁했다. 김동현/기자

상주교육지원청, 경북 최초 나이스 시장조사 자료관리 시스템 활용

업무 부담은 낮추고, 학교급식 질은 올린다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경북 영양(교)사들은 공동시장조사반을 운영하여 공통품목에 대한 시장조사를 실시 후 결과를 취합해 교육지원청에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로 안내한 시장조사 결과를 참고해 식단에 사용될 식재료 품목의 시장조사 단가를 학교별로 일일이 나이스 시스템에 수기 입력해 왔다. 상주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부터 건강증진담당과 관내 영양(교)사로 이루어진 학교급식 나이스 식재료 품목 코드맵핑 TF팀을 운영해,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로 사용하는 공통품목 1,000 여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나이스 코드맵핑 작업을 진행 중이다. 9주에 걸친 맵핑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교육지원청에서 나이스 시스템에 시장조사 결과를 업로드하면 번거로운 수

기 입력 과정 없이 모든 학교에 시장조사 가격이 즉시 적용된다. 오는 6월, 경북 최초로 상주 관내 급식학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해당 시스템 활용을 시작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2학기에는 경북 전체 시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맵핑된 품목 코드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학교에서 짧게는 4시간에서 길게는 하루가 걸리던 수기 입력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옥 교육장은 "시장조사 자료관리 시스템 활용으로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단가 입력에 소요 되는 시간이 단축된 만큼,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데 더 많은 시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김동현/기자



를 전하고, '너를 응원해'라는 구호도 외치면서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신덕섭 교육장은 "학업 중단 예방의 날 운영을 통해 위기 학생을 사전에 발굴하여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건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경상북도



경주시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유산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시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에
도전합니다!

